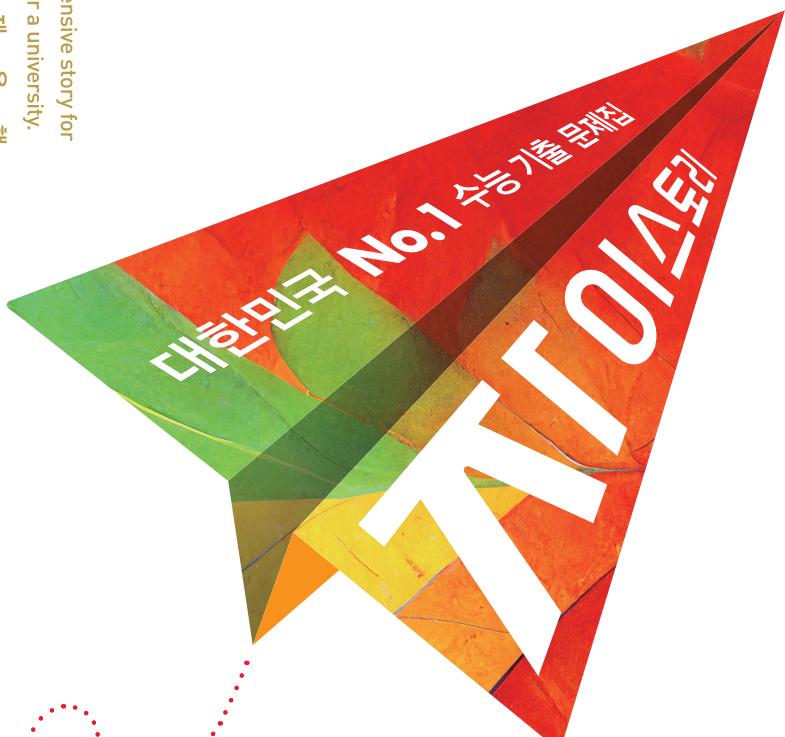


2024 수능 대비



수능 기출문제 응집 행

Xistory stands for extra intensive story for
an entrance examination for a university.



수능 국어 언어와 매체 실전

- ▲ [언어(문법)] 최신 5개년 수능, 모평, 학평 전 문항 수록
- ▲ [매체] 최신 수능, 모평, 학평 전 문항 + 예상 문제 수록
- ▲ 생활 속 예시와 그림으로 쉽게 이해되는 문법 개념 설명
- ▲ 최신 출제 경향에 따른 복합 유형 문제 특별 구성
- ▲ 1등급, 2등급 퀄리 문제 + 문제 분석 · 입체 선택지 분석
- ▲ 지문 속 문법 개념 정리 – 이것이 핵심!
- ▲ 명쾌한 지문 분석, 매력적 오답, 꿀팁, 입체 첨삭 해설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
강의교재



박 조 은

경북대 치의예과 2022년 입학
충남 한일고 졸

Xi story Honors



“문법 지식이 문법 문제 풀이에 즉각 활용되도록 실제 시험장처럼 시간 압박을 느껴보자!”

■ 문법 개념의 전체적인 구조도를 그리자!

문법을 공부하는 목적이 뭘까? 언어 파트의 문제를 모두 맞히기 위해서? 아마 그것뿐만은 아닐 거야. 문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문제를 모두 ‘적절한 시간 내에’ 풀어서 맞히기 위해서 아냐? 그래서 나는 이 목적에 적합한 공부법을 선택해야 실제로 시험장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문법적인 개념들이 머릿속에 어리저리 산재해 있는 상태가 아닌, 잘 정리되어서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이 한번에 파악되는 상태가 되도록 공부했어. 나는 <자이스토리 언어와 매체>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개념을 한 권의 노트에 필기하며 정리했어. 이때 특히 문법 전체 내용이 구조적으로 정리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어. 예를 들어 ‘고등학교 문법의 전체 내용은 음운, 단어, 문장, 국어사 등으로 구성되고, 그 중에서 음운은 음운 체계와 음운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어’와 같이 문법 개념의 전체 내용을 정리했지.

■ 시간 압박을 느끼며 문제를 풀어야 머리속 문법 지식이 빠르게 인출될 수 있는 지식으로 변한다!

문법적 지식은 ‘내용’이지만, 문법 문제 풀이는 ‘사고 과정’이니까, 실제 시험장에선 이 차이가 크게 느껴질 수 있어. 그래서 공부를 할 때 개념을 정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시험장에서 시간 압박을 느끼며 문법 문제를 푸는 것’의 느낌을 몸소 느껴봤으면 좋겠어. 그 과정에서 실제로는 머릿속에서 정리된 줄 알았던 문법적 개념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건 아직 그 내용이 완전히 내 것이 아니라는 뜻이니까 개념적 이해를 점검하는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거야. 그런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너의 머릿속에서 ‘이론적으로만 잘 정리된 문법 지식’은, ‘잘 가공되어서 시험 문제 풀이에 필요할 때 빠르게 인출될 수 있는 지식’으로 변할 거야. 그렇게 되면 시험장에서 당황스러운 문제를 마주하더라도 자연스럽게 관련 개념을 떠올려서 짧은 시간 내에 문법 문제들을 모두 풀어낼 수 있겠지?

■ 오답을 점검할 때 관련 개념은 모두 확인하자!

문제를 풀다 보면, 반드시 틀리는 문제가 생기기 마련인데, 공부 실력은 원래 문제를 맞혔을 때보다 틀리고 그 내용을 반성하는 과정에서 향상되는 거니까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어. 다만 틀린 문제를 발전의 디딤돌로 삼으려면 반드시 내가 실수한 이유에 대해 확인하고 다시 학습하는 과정을 거쳐야 해. 나는 이때 단순히 틀린 내용에만 집착하지 말고, 틀린 문제를 그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시 복습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어떤 약점이 있다면 관련한 다른 내용들에도 약점이 있을 확률이 높거든. 나는 이런 입체적인 복습을 통해서 문제를 풀 때마다 내가 가진 문법적 개념을 더욱더 견고히 쌓을 수 있었고, 그 결과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어.

■ 매일 오전은 국어를 공부하는 시간!

국어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꾸준함이야. 왜냐하면 수능장에서의 너는, 결국 열심히 달려왔던 지난 날의 네 모습이 모여 만들어지거든. 그래서 수능을 치기 이전에, 네가 ‘수능 시험장에서는 이렇게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너를 자꾸 경험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시간을 가져야 해. 그런 날들을 꾸준히 반복해야만 수능장에서 네가 생각하는 좋은 판단, 시간 안배 및 기타 여러 가지를 실제로 할 수 있어.

나는 매일 오전을 국어를 공부하는 시간으로 정해두고, 하루의 공부를 시간을 재며 기출문제를 풀고, 그 이후에 나의 문제 풀이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시작했어. 그리고 그런 꾸준함들이 나 스스로를 믿을 수 있게 해줬어. 비로소 내가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되었을 때, 나는 수능 시험에 대한 떨리는 마음을 조금은 떨치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으로 수능 시험에 임할 수 있었어.



My Story Xi Story [수능 국어 언어와 매체 실전]

언어와 매체, 유형을 제대로 익히면 국어 1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법은 오랫동안 배웠지만 시험 대비용으로 암기만 했기 때문에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또 잊어버리고 늘 새롭습니다.

자이스토리는 문법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 문제에 적용하는 과정을 익혀
머릿속에 오래 각인될 수 있는 암기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먼저 문법 개념을 세분화해 정리하였고,
문제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과 관련된 풍부한 예문을 담았습니다.
또 유형이 촘촘하게 분류된 문제로 수능 문제 유형에 완벽히 대비하고
1등급 퀄리 문제 특강으로 고난도 문제의 해법을 단계별로 훈련할 수 있습니다.

매체는 낯선 형식이 아직은 생소합니다.
그래서 유형 문제 특강을 통해 꼭 나오는 문제 유형에 익숙해지도록 했습니다.

이제 자이스토리로 쉽고 재미있게 공부해 보세요.
문제가 술술 풀리면서 국어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되고
반드시 수능 국어 1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No.1 수능 문제집 자이스토리 -



내신+수능 1등급 완성 학습 계획표 [36일]

Day	페이지	틀린 문제 / 헷갈리는 문제 번호 적기	날짜	복습 날짜
1	A 12~17		월 일	월 일
2	B 18~24		월 일	월 일
3	25~31		월 일	월 일
4	C 32~37		월 일	월 일
5	D 40~47		월 일	월 일
6	48~56		월 일	월 일
7	E 57~68		월 일	월 일
8	F 69~73		월 일	월 일
9	G 74~81		월 일	월 일
10	82~89		월 일	월 일
11	H 92~99		월 일	월 일
12	I 100~105		월 일	월 일
13	106~112		월 일	월 일
14	J 113~120		월 일	월 일
15	K 121~127		월 일	월 일
16	128~132		월 일	월 일
17	L 133~138		월 일	월 일
18	M 140~145		월 일	월 일
19	146~150		월 일	월 일
20	N 151~158		월 일	월 일
21	O, P 159~165		월 일	월 일
22	Q 166~173		월 일	월 일
23	174~182		월 일	월 일
24	R 184~186		월 일	월 일
25	S 187~195		월 일	월 일
26	196~203		월 일	월 일
27	204~213		월 일	월 일
28	214~221		월 일	월 일
29	222~229		월 일	월 일
30	230~237		월 일	월 일
31	T 240~253		월 일	월 일
32	254~267		월 일	월 일
33	268~281		월 일	월 일
34	U 282~293		월 일	월 일
35	294~306		월 일	월 일
36	307~318		월 일	월 일



• 나는 _____ 대학교 _____ 학과 _____ 학번이 된다.

• 磨斧 作針 (마부작침) – 도끼를 갈아 비늘을 만든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끈기 있게 노력하면 이를 수 있음을 비유하는 말)

▣ 문항 배열 및 구성 [538제]

① 언어(문법) – 최신 5개년 수능, 모의평가, 고2·고3 학력평가 전 문항 수록

- 최신 5개년 수능, 평가원, 고2·고3 학력평가 전 문항을 수록하였습니다.(270문항)
- 2018 ~ 2014 수능, 모의평가, 고2·고3 학력평가 우수 문항을 선별 수록하였습니다.(125문항)

② 매체 – 최신 2개년 수능 · 모의평가 · 고3 학력평가 전 문항, 기출 변형 문제 수록

- 최신 수능 · 모평 · 고3 학평 전 문항을 수록하였습니다. (84문항)
- 적중률 높은 기출 변형 예상 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48문항)

③ 2022 수능 예시 언어와 매체 전 문항 수록

- 2022 수능 예시 문항 중 [언어와 매체] 선택 영역의 전 문항을 수록하였습니다.(11문항)

[언어와 매체 실전 문항 구성표]

고3 대비 연도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수능 11월	문항 수
2023	고3 (연5+매6)	11	11	11	11	11	11	11	92
	고2	5		5		5			
2022	고3 (연5+매6)	11	11	11	11	11	11	11	97
	고2	5		5		5		5	
2021	고3	5	5	5	5	5	5	5	55
	고2	5		5		5		5	
2020	고3	5	5	5	5	5	5	5	55
	고2	5		5		5		5	
2019	고3	5	5	5	5	5	5	5	55
	고2	5		5		5		5	
2018	고3	5	3	4	5	5	5	5	45
	고2	4		5		2		2	
2017~2014 수능, 모의평가, 고2·고3 학력평가 우수 문항									80
2022 수능 예시 문항									11
매체 예상 문제									48
총 문항 수									538

2023 대비 6월, 9월 모의+수능

언어와 매체 문항 배치표 (홀수형 기준)

문항 번호	6월	9월	수능
35	S59	S57	S77
36	S60	S58	S78
37	Q05	E19	P01
38	D01	K07	R01
39	K01	N01	I24
40	U32	U40	U46
41	U33	U41	U47
42	U34	U42	U48
43	U35	T34	U49
44	T30	T35	T40
45	T31	T36	T41

 차례

PART

1

언어

I. 언어와 음운

A 언어와 음운

개념 01 언어의 특성	12
개념 02 국어의 음운 체계	12
개념 03 국어의 자음 체계	13
개념 04 국어의 모음 체계	14
수능 개념별 기출문제	15

B 음운 변동 I – 음운 교체

개념 05 음운 교체	18
수능 개념별 기출문제	21

C 음운 변동 II – 음운 탈락 · 첨가 · 축약

개념 06 음운 탈락	25
개념 07 음운 첨가	26
개념 08 음운 축약	26
1등급 퀄리 문제 특강	27
수능 개념별 기출문제	28
1등급 퀄리 문제	36
동아리 소개 / 포항공대 치어로	38

II. 단어

D 단어의 구조와 형성

개념 09 단어와 형태소	40
개념 10 단어의 형성	41
개념 11 복합어	42
수능 개념별 기출문제	44
2등급 퀄리 문제	52

E 품사 I – 체언, 용언

개념 12 품사의 분류 기준	57
개념 13 체언	57
개념 14 용언	58
수능 개념별 기출문제	60
2등급 퀄리 문제	68

F 체언 II –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개념 15 수식언	69
개념 16 관계언과 독립언	70
수능 개념별 기출문제	71

G 단어의 의미 관계

개념 17 사전 활용하기	74
개념 18 단어의 의미 관계	75
수능 개념별 기출문제	77
2등급 퀄리 문제	89
동아리 소개 / 서울대학교 카페인	90

III. 문장과 담화

H 문장 성분

개념 19 문장의 구성 단위와 문장 성분	92
개념 20 주성분	92
개념 21 부속 성분	94
개념 22 독립 성분	95
수능 개념별 기출문제	96
2등급 퀄리 문제	99

I 문장 구조

개념 23 홀문장과 겹문장	100
개념 24 이어진문장	100
개념 25 인은문장	101
수능 개념별 기출문제	103
2등급 퀄리 문제	110

J 문법 요소 I – 종결 · 높임 · 시간 표현

개념 26 종결 표현	113
개념 27 높임 표현	114
개념 28 시간 표현	115
수능 개념별 기출문제	116
2등급 퀄리 문제	120



K 문법 요소 II – 피동 · 사동 · 부정 · 인용 표현

개념 29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	121
개념 30 부정 표현	122
개념 31 인용 표현	122
개념 32 정확한 문장 표현	123
수능 개념별 기출문제	124
2등급 퀄리 문제	131

L 담화

개념 33 담화의 개념과 요소	133
수능 개념별 기출문제	134

IV. 어문 규정

M 한글 맞춤법

개념 34 총칙과 띄어쓰기	140
개념 35 소리에 관한 것	141
개념 36 형태에 관한 것	142
수능 개념별 기출문제	143
2등급 퀄리 문제	149

N 표준 발음법

개념 37 총칙과 모음 · 받침의 발음	151
개념 38 음의 동화와 첨가	152
수능 개념별 기출문제	153
2등급 퀄리 문제	157

O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념 39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159
수능 개념별 기출문제	160

V. 국어의 역사

P 한글의 창제 원리

개념 40 한글 창제 이전의 문자 생활	162
개념 41 한글의 창제 원리	163
수능 개념별 기출문제	164

Q 중세 · 근대 · 현대 국어의 비교

개념 42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비교	166
개념 43 근대 국어와 현대 국어의 비교	167
1등급 퀄리 문제 특강	168
수능 개념별 기출문제	170
1등급 퀄리 문제	181

VI. 복합 유형

R 개념 복합 유형

문법 개념 + 문법 개념	184
수능 유형별 기출문제	185

S 지문 복합 유형

유형 01 지문 + 중세 국어 + 현대 국어	187
유형 02 지문 + 문법 개념 + 문법 개념	187
1등급 퀄리 문제 특강	188
수능 유형별 기출문제	190
1등급 퀄리 문제	227

PART 2 매체

T 매체

개념 44 매체의 개념과 유형	240
개념 45 매체 언어의 개념과 특성	240
개념 46 매체 자료의 수용과 생산	241
개념 47 생활 속의 매체 및 매체에 관한 태도	241
수능 기출 + 예상 문제	242

U 언어와 매체 복합

2등급 유형 문제 특강	282
수능 기출 + 예상 문제	285

빠른 정답 찾기 320



핵심 개념 강화와 기출문제 훈련으로 수능 1등급 완성

1 언어(문법) 개념 세분화 정리 – 쉽게 이해하고 암기

- 언어(문법)와 매체 교과서에 수록된 개념들이 쉽게 이해되도록 세분화해서 정리했습니다.
- 그림, 사진, 도표 등을 풍부히 활용하여 개념을 쉽게 이해시키고 시각적으로 오래 기억되도록 했습니다.
- 보조단의 보충 설명으로 개념 이해를 돋고, 심화된 자료를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게 했습니다.

B 음운 변동 I - 음운 교체

음운 변동은 한 음운이 일정한 환경에서 다르게 발음되는 현상이다. 음운 변동은 밤음을 쉽게 하여 밤음의 경계성을 높이기 위해 일어나는 현상으로, 한 단어에 두 가지 이상의 음운 변동이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

*** 음운 변동 유형**

교체	발음 결과에 따라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뀐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옹' '침' '멍' '꽈와일음화),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편스리되기 (경음화) 등
탈락	원래 있던 음운이 없어진다. 자음군 단순화, 자음 탈락 ('e' 탈락, 's' 탈락), 모음 탈락 ('-' 탈락, 동일 모음 탈락) 등
첨가	새로운 음운이 추가된다. '-' 첨가, 반도음 첨가 등
축약	두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의 음운으로 바뀐다. 거센소리되기 (격음화) 등

**2022 6월 모음 36%
2022 9월 모음 36%**

▶ 힌트 어려울 때는 단어의 유형을 가로에 넣어 활용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려울 때는 단어의 유형에 해당하는 각자의 음운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 평가별음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 빈출 개념 표시

출제: 6·9월·수능 출제 경향 표시

3 수능 개념별 기출문제

- 최신 수능, 모의평가, 학력평가 문항을 개념 흐름에 맞게 난이도별로 구성하였습니다.
- 난이도: ★★★ – 상, ★★☆ – 중, ★☆☆ – 하
- 출처 표시: 평가원 – 대비 연도, 교육청 – 실시 연도

예 2022(9월)/평가원 35: 2021년 9월에 실시한 모의평가
2021(3월)/교육청 35: 2021년 3월에 실시한 학력평가
2022 실시 3월 학평 36: 2022년 3월에 실시한 학력평가
2023 대비 수능 37: 2022년에 실시한 수능

수능 개념별 기출문제

제55 음운 교체

비음화: 밤천에 있는 파열음 'ㄱ', 'ㄷ', 'ㅂ'은 비음 'ㄴ', 'ㅁ' 앞에서 각각 동일한 조음 위치의 비음인 'ㅇ', 'ㄴ', 'ㅁ'으로 바뀌어 발음됨. 예: 국민[궁민]
유음화: 비음 'ㄴ'은 앞이나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으로 유음 'ㄹ'로 바뀌어 발음됨. 예: 같님[감남]
구개음화: 꼴소리 'ㄷ', 'ㅌ'(=이 모음) 'ㄴ'이나 모음 'ㅓ', 'ㅏ' 등과 결합하는 경우에 구개음 'ㅈ', 'ㅊ'으로 바뀌어 발음됨. 또한 'ㄷ' 뒤에 'ㅓ'-가 올 때 'ㄷ'과 'ㅓ'이 결합한 'ㅌ'은 'ㅊ'으로 발음됨. 예: 해돋이[해도지]

B02 ★★☆

<보기 1>을 활용하여 <보기 2>의 음운 적절한 것은?

<보기 1>		
조음 위치	입술소리	잇몸소리
파열음	ㅂ, ㅍ	ㄷ, ㅌ
파찰음		
비음	ㅁ	ㄴ
유음		ㄹ

<보기 2>

조음 위치	입술소리	잇몸소리
파열음	ㅂ, ㅍ	ㄷ, ㅌ
파찰음		
비음	ㅁ	ㄴ
유음		ㄹ

2 개념 핵심 정리 – 문제 풀기 전 핵심 개념 복습

- 기출문제를 풀기 전, 핵심 개념을 복습하게 구성했습니다.
- 기출문제와 연계된 개념을 정리하여 문제 풀이에 필요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파악하게 했습니다.

02 국어의 음운 체계

분절 음운	자음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막히거나 방해를 받아서 나는 소리임.
		모음
비분절 음운	소리의 길이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임.
		현대 국어에서는 소리의 길이(장단) 또한 말의 뜻을 구별하게 함.

4 1등급 킬러 문제 특강+2등급 유형 문제 특강

- 1·2등급을 결정하는 최고난도 문항의 해결 방법을 특강을 통해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게 했습니다.
- 문제 풀이 공식을 반복해서 읽어 보는 것만으로도 문제 해결의 key를 찾을 수 있습니다.

1등급 킬러 문제 특강

C01 내용 파악하기

• 이 유형은 음운 변동의 유형을 제시하고, 해당 음운 변동이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는 단어를 고르는 형태로 주로 출제된다.

C01 킬러 문제

다음의 ①에 해당하는 것을 ③~⑧ 중에서 바르게 고른 것은?

원격 수업에서 활용하기 위해 우리말 음성을 한글로 변화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다. 아래는 이 프로그램의 개발자가 쓴 익자기의 익보이다.

언어와 매체 복합

• U03 유형은 매체 차고에 나타난 문법을 묻는 형태로 출제된다.

[U01 ~ U3] [가]는 종이 신문이고, [나]는 [가]의 기사를 보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를 검색한 화면이다. 물을에 답하시오.

(가)

제3000호 2022.09.01 사회

제3000호 001호

넘치는 '기자 뉴스'... 사실 애국과 사회적 갈등 유발 심각
누리스통망 통해 브로드, 널리 퍼져
'사실 뉴스보다 더 많이 공유되기도'

• U01 ☆☆☆

2022(수능 예시)/평가원 40

(가)와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는 각 기사의 본문 내용이, (나)는 표제의 크기가 독자의 기사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② (가)와 달리 (나)는 각 기사의 표제뿐만 아니라 부제의 내용과 표제도 독자의 주의를 끌는 요인이 된다.
③ (가)와 달리 (나)는 기사의 배열 기준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독자의 필요에 따라 순서를 재배열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나)와 달리 (가)는 기사마다 제공되는 시간이 다르므로 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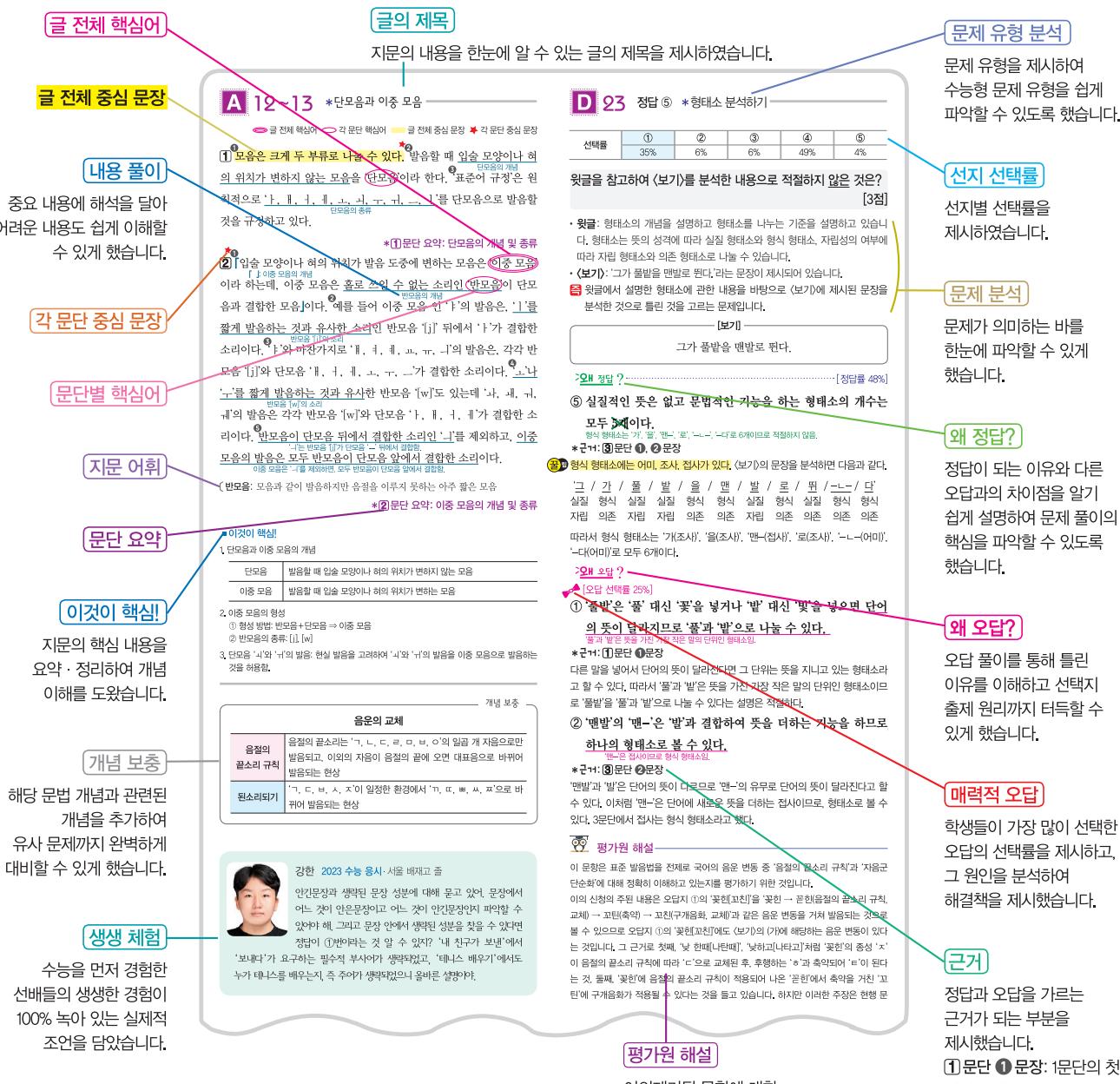


5 1·2등급 킬러 문제 별도 구성

- 고2, 고3 학평, 모평, 수능 기출문제 중 정답률이 낮은 고난도 문항을 선별해 구성했습니다.

- 1등급 퀄리 문항: 출제 빈도가 높은 고난도 문항
- 2등급 퀄리 문항: 까다로운 개념을 다룬 문항

6 다시는 틀리지 않게 해주는 입체 첨삭 해설!



집필진 · 감수진 선생님들



• 자이스토리는 수능 준비를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수능, 모의평가, 학력평가 기출문제를 개념별, 유형별, 난이도별로 수록하였으며, 명강의로 소문난 학교·학원 선생님들께서 명쾌한 해설을 입체 첨삭으로 집필하셨습니다.

[집필진]

김효진 경기 현화고등학교
노승연 서울 경기고등학교
노준철 경기 서해고등학교

송현우 서울 신도고등학교
유은지 서울 미림여자고등학교
최슬지 서울 수명고등학교

최은아 경기 심석고등학교
최혜민 서울 미림여자고등학교
한혜령 서울 서라벌고등학교

[감수진]

강영석	서울 대성학원	박지현	김종길 국어 논술학원 오목관	이 한	서울 송파 청명학전 학원
공재혁	울산 훈민정음학원	박지혜	천안 중앙고등학교	이효정	남양주 와부고등학교
곽승협	울산 지렛데국어학원	박진운	시흥 박진운국어전문학원	임소민	부산 명지이강학원
김근호	양주 한샘학원	배한철	서울 청산미래와사람들 학원	임종빈	울산 임종빈 국어 학원
김미옥	대구 틀을잡는학원	손정아	고양 이투스네오 학원	정석영	울산 하늘연국어학원
김병훈	광주 서강고등학교	신민진	광명 열림국어 학원	정하윤	대구 편작국어학원
김용관	천안 복자여자고등학교	신창근	고양 대세국어학원	정혜련	남양주 진접고등학교
김용길	천안 월봉고등학교	안효선	광주 송원고등학교	채수만	파주 교하고등학교
김용한	남양주 동화고등학교	어수모	울산 어수모 국어논술학원	최옥미	동두천 비상 아이비츠 학원
김용환	안양 평촌대시나루 국어 학원	오 훈	서울 강북 청솔 학원	최정호	울산 최정호 언어논술학원
김주혁	서울 장훈고등학교	유승이	고양 제이클래스 학원	최진아	고양 이앤케이 학원
김준실	고양 이루는 학원	유 준	광명 진성고등학교	하대빈	용인 수지고등학교
라성경	대구 언어와사고 국어 학원	윤욱준	서울 상아 학원	한설희	동두천 열린학원
문가윤	남양주 덕소고등학교	이동미	용인 보정고등학교	한용호	성남 분당 청솔학원
문상철	부산 지식인학원	이루하	울산 이루하교육그룹	현예리	서울 장훈고등학교
박병용	의정부 채러티 크리스천 아카데미	이미정	고양 퀸플러스 학원	홍성유	양주 덕정 한샘학원
박상우	광주 화수분야아카데미	이선영	천안 중앙고등학교	홍인지	대구 흥인지 국어 학원
박선훈	고양 이데아 국어 학원	이영창	용인 성지고등학교	황계연	울산 (주)태화학원
박수용	서울 장훈고등학교	이진희	부산 이진국어전문학원		
박영민	고양 이지베스트학원	이찬호	의정부 북부세일학원		

수능 선배들의 비법 전수 – 수험장 생생 체험 소개

긴장되고 떨리는 수험장에서 선배들이
문제를 풀면서 겪은 생생한 체험과 나만의 풀이 비법을
자이스토리 해설편에 수록했습니다.

• 2023 응시



강 한
서울 배재고 졸업



권주원
서울 배재고 졸업



김보경
광주서석고 졸업



김수정
부산국제고 졸업



김예온
부산 다대고 졸업



김준서
부산 대연고 졸업



김태산
광주서석고 졸업



김현서
경기 평택고 졸업



나인규
광주 국제고 졸업



명준하
광주서석고 졸업



박서영
부산 사직여고 졸업



박세민
광주 광덕고 졸업



백규민
대구 성화여고 졸업



선명신
순천복성고 졸업



유기범
의산 남성고 졸업



이민형
광주 보문고 졸업



이서영
대구 원화여고 졸업



장경은
서울 세화여고 졸업



장성우
부산 대연고 졸업



정서린
서울 세화여고 졸업



조해인
서울 목동고 졸업



조현준
의산 이리고 졸업



최윤성
서울 양정고 졸업



홍지형
화성 안화고 졸업



홍채연
서울 한영고 졸업



황은준
경기 비봉고 졸업

• 2022년

강민성	부산 해운대고 졸 (성균관대 의예과)
강연욱	서울 한영고 졸 (연세대 노어노문학과)
고현웅	광주서석고 졸 (전남대 의예과)
공준형	경기 우성고 졸 (가톨릭관동대 의예과)
김서윤	경기 우성고 졸 (성균관대 글로벌경제학과)
김예리	서울 수명고 졸 (고려대 의예과)
김찬우	의산 이리고 졸 (전남대 의예과)
김혜윰	경기 송신여고 졸 (서울대 인문대학)
박정빈	의산 이리고 졸 (고려대 한국사학과)
박준현	전남 장성고 졸 (육군사관학교)
송홍준	광주 국제고 졸 (고려대 융합에너지공학과)
양예진	전주 상산고 졸 (이화여대 의예과)
오석우	광주 한일고 졸 (서울대 의예과)
오연주	전주 솔내고 졸 (서강대 사회학과)
이수현	대구 송현여고 졸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장인우	광주 고려고 졸 (서울대 인문학부)
전수현	경기 송신여고 졸 (한림대 의예과)
정지호	의산 남성고 졸 (경찰대학교)
최준명	서울 양정고 졸 (KAIST 새내기과정학부)

• 2021년

강혜윤	경기 수지고 졸 (서울대 인문계열)
김도원	인천하늘고 졸 (서울대 화학부)
김도훈	서울 배재고 졸 (고려대 노어노문학과)
김민준	서울 장충고 졸 (연세대 전기전자공학부)
김재서	서울 양정고 졸 (연세대 산업공학과)
김준형	서울 종산고 졸 (경북대 치의예과)
박재현	경북 구미고 졸 (가톨릭대 의예과)
송의현	안산 동산고 졸 (원광대 의예과)
안지연	서울 창덕여고 졸 (서울대 인문계열)
윤 혁	서울 동양고 졸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이새영	서울 선린인터넷고 졸 (연세대 기계공학부)
이우민	경기 평택고 졸 (KAIST 새내기과정학부)
임예은	경기 동탄국제고 졸 (연세대 경제학과)
임종민	경기외고 졸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최서영	경기 동탄국제고 졸 (서울대 경제학부)
최주영	서울 보인고 졸 (가톨릭대 의예과)

언어(문법)

국어 언어(문법) 영역에서 매번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문제 유형은 <보기>나 지문을 제시하는 경우입니다. 문법 용어나 개념에 대한 설명을 <보기>나 지문에 제시한 후, 선택지에서 이를 적용한 사례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유형입니다.

대표 문제 유형

1 <보기>를 바탕으로 개념 파악하기

C30 ④ 1등급 칼라 2019(9월)/고2교육청 13

<보기>의 ㄱ~ㄹ에 대해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 | |
|-------------|-------------|
| ㄱ. 신래[실라] | ㄴ. 국물[궁물] |
| ㄷ. 읊여름[율려음] | ㄹ. 해돋이[해도지] |

- ① ㄱ과 ㄴ은 모두 앞의 음운이 뒤의 음운의 성질을 담아 변동된 것이군.
- ② ㄱ과 ㄷ은 모두 하나의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이 일어났군.
- ③ ㄱ과 ㄹ은 모두 음운의 변동이 일어나기 전과 후의 음운의 개수에 변화가 없군.
- ④ ㄴ과 ㄷ은 모두 두 형태소가 결합할 때 음운 변동이 일어났군.
- ⑤ ㄷ과 ㄹ은 모두 두 번 이상의 음운 변동이 일어났군.

유형 포인트

- 교체, 탈락, 첨가, 축약 등 음운 변동에 대한 개념 설명은 <보기>에 제시되기 때문에 단순히 개념을 암기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 제시되는 단어의 음운 변동 양상을 빠르게 분석할 수 있도록 평소에 훈련해야겠죠?

유형 해결 비법

- ‘읽느라’, ‘훑고서’, ‘예삿일’, ‘알약을’, ‘앓았다’의 다섯 가지 단어에서 어떤 음운 변동 양상이 일어나는지 파악해 내야 해요.
- 선택지를 보면 두 가지 음운 변동 양상이 동시에 일어나네요. 한 가지만 맞는 것을 고르는 실수를 하면 안 돼요.

2 지문을 통해 개념 파악하기

S59~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음운은 단어의 뜻을 변별하는 데 사용되는 소리로 언어마다 차이가 있다. 예컨대 국어에서는 음운으로서 ‘ㅅ’과 ‘ㅆ’을 구분하지만 영어에서는 구분하지 않는다. 음운이 실제로 발음되기 위해서는 발음의 최소 단위인 음절을 이뤄야 하는데 음절의 구조도 언어마다 다르다. 국어는 한 음절 내에서 모음 앞이나 뒤에 각각 최대 하나의 자음을 들 수 있지만 영어는 ‘spring[spring]’처럼 한 음절 내에서 자음군이 형성될 수 있다.

음운은 그 자체로는 뜻이 없다. 음운이 하나 이상 모여 뜻을 가지면 의미의 최소 단위인 형태소가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형태소를 결합하여 단어를 만들고 말을 한다. 이때 ⑦ 형태소와 형태소가 만나는 경계에서 음운이 다양하게 배열되고 발음이 결정되는데, 여기에 음운 규칙이 관여한다. 예컨대 국어에서는 ‘국물[궁물]’처럼 ‘파열음-비음’ 순의 음운 배열이 만들어지면, 파열음은 동일 조음 위치의 비음으로 교체된다. 그런데 이런 음운 규칙도 모든 언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영어에서는 ‘nickname[nikneim]’처럼 ‘파열음(k)-비음(n)’이 배열되어도 비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S60 ***

2023 대비 6월 모평 36(고3)

⑦의 위치에서 음운 변동이 일어난 예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 | | | |
|----------|------------|----------|
| Ⓐ 앞일[암닐] | Ⓑ 장미꽃[장미꽃] | Ⓒ 넣고[너코] |
| Ⓓ 걱정[걱정] | Ⓔ 굳이[구지] | |

- | | | |
|-----------|--------------|--------------|
| ① Ⓐ, Ⓑ, Ⓒ | ② Ⓑ, Ⓒ, Ⓓ | ③ Ⓑ, Ⓒ, Ⓓ, Ⓔ |
| ④ Ⓑ, Ⓒ, Ⓓ | ⑤ Ⓑ, Ⓒ, Ⓓ, Ⓔ | |

유형 포인트

- 단순히 어떠한 음운 변동이 일어났는지 파악하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조건을 이해하고 그 조건을 바탕으로 음운 변동의 양상을 구분해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유형 해결 비법

- <보기> 속 단어의 형태소를 분석하고 그 형태소 경계에서 음운 변동이 일어났는지 확인해 보세요.



III. 문장과 담화

H 문장 성분

J 문법 요소 I

L 담화

I 문장 구조

K 문법 요소 II

H 문장 성분

개념 19 문장의 구성 단위와 문장 성분

개념 20 주성분

개념 21 부속 성분

개념 22 독립 성분

I 문장 구조

개념 23 홀문장과 겹문장

개념 24 이어진문장

개념 25 안은문장

J 문법 요소 I

개념 26 종결 표현

개념 27 높임 표현

개념 28 시간 표현

K 문법 요소 II

개념 29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

개념 30 부정 표현

개념 31 인용 표현

개념 32 정확한 문장 표현

L 담화

개념 33 담화의 개념과 요소

* 최신 3개년 수능 · 모평 출제 경향

학년도	출제 개념	난이도
2023	수능 문장 성분·문장 구조(I24)	★★★
	9월 부정 표현(K07)	★★
	6월 피동 표현(K01)	★★
2022	수능 서술어의 자릿수(H11)	★★★
	지시·대용 표현(L01)	★
	9월 출제되지 않음.	
2021	6월 안은문장의 종류(I22)	★★
	담화 표현(L12)	★★
	수능 안은문장의 종류(I27)	★★★
2021	9월 출제되지 않음.	
	6월 명사절을 가진 안은문장(I05)	★★★
	6월 담화 상황에 적합한 담화 표현, 높임·종결 표현(L10~11)	★★

[수능] 명사절, 관형절이 안기면서 생략된 문장 성분이 무엇인지, 또 그 명사절과 관형절이 안은문장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문장의 성분과 구조를 모두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이 풀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9월] 형용사에 '안'이나 '–지 않다'가 결합한 부정문, 주어가 무정물일 때 '안'이나 '–지 않다'가 사용된 단순 부정문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6월] 피동 표현을 만드는 방법과 피동문에 대응하는 능동문 그리고 능동문에 대응하는 피동문이 없는 경우를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피동 표현의 개념뿐 아니라 사동 표현 그리고 문장에서 각 서술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 2024 수능 예측

- 문법 요소와 문장 구조 문제는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개념입니다. 문장 영역의 문제는 특히 각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모든 개념을 적용하여 풀어야 하기 때문에 난도가 높습니다.
- 문장 성분과 같은 기본 개념을 숙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은문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문장 구조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H

문장 성분

중요도 ★★★

개념 19 문장의 구성 단위와 문장 성분

1 문장: 생각이나 감정을 완결된 내용으로 표현하는 최소의 언어 형식

2 문장의 구성 단위

어절	•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마디로, 띄어쓰기 단위와 일치함.
구	• 둘 이상의 어절이 모여서 하나의 단어와 동등한 기능을 하는 것 •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가지지 못함.
절	•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갖추었으나 다른 문장 안에서 특정한 성분으로 포함되어 쓰이는 것 • 기능에 따라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로 나뉨.

1 문장의 기본 골격

문장의 기본 골격은 서술어의 성격에 따라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누가 무엇이	어찌한다. [동사(동작)] 어찌한다.
누가 무엇이	어떠하다. [형용사(상태)] 어떠하다.
누가 무엇이 주어	무엇이다. [체언+서술격] 무엇이다. [조사 '이다'] 서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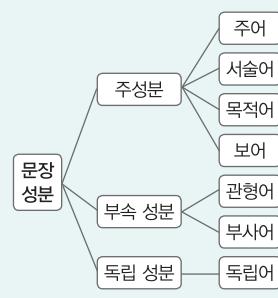
3 문장 성분: 문장 안에서 일정한 문법적 기능을 하는 각 부분들

개념 20 주성분 문장의 골격을 이루는 필수적 문장 성분

1 주어: 문장에서 동작이나 상태, 성질의 주체를 나타내는 문장 성분

주어의 형태	예	
체언 또는 체언 역할을 하는 구·절 + 주격 조사 (이/가, 께서)	영수 ^가 축구를 한다. 우리 팀이 승리했음 ^이 분명하다. 명사+주격 조사	
체언 또는 체언 역할을 하는 구·절 + 보조사 (은/는, 만, 도)	지구 ^는 둥글다. 영희 ^도 지금 밥 먹어. 명사+보조사	
체언 또는 체언 역할을 하는 구·절 (주격 조사가 생략됨.)	철수 어디 가니? 저 친구네 집에 가요. 명사(조사 생략)	

2 문장 성분



2 서술어: 문장에서 주어의 동작, 상태, 성질을 나타내는 문장 성분

다양한 서술어의 형태	예	
용언의 활용형	용언의 연결형	강물이 <u>깊고</u> , 맑다.
	용언의 명사형	한글은 <u>배우기</u> 쉽다.
	용언의 관형사형	그가 <u>뛰어오는</u> 소리가 들렸다.
본용언+보조 용언	새 휴대폰이 <u>갖고 싶다</u> .	지우가 만든 음식을 <u>먹어 보았다</u> .
서술절	영수는 <u>키가 크다</u> .	그는 <u>마음이 넓다</u> .

‘나는 학생이다’에서 ‘학생이다’와 같이 체언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결합한 형태도 서술어에 해당해!

* 서술어의 자릿수: 한 문장에서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

서술어의 종류	한 자리 서술어	두 자리 서술어			세 자리 서술어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	주어	주어+목적어	주어+보어	주어+필수적 부사어	주어+목적어+필수적 부사어
예	비가 내린다. <small>주어</small>	영희가 음악을 <small>주어 목적어</small>	영희가 대학생이 <small>주어 보어</small>	진호는 할아버지와 <small>주어 필수적 부사어</small>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용돈을 <small>주어 필수적 부사어 목적어</small>

3 ❶ 목적어: 문장에서 서술어가 나타내는 동작의 대상이 되는 문장 성분으로, 타동사가 서술어로 쓰일 때 필요하다.

목적어의 형태	예
체언 또는 체언 역할을 하는 구·절 + 목적격 조사 (을/를)	영희가 <u>철수를</u> 좋아한다. 영희는 철수의 행복을 빈다. 영희는 철수가 학생하기를 빈다.
체언 또는 체언 역할을 하는 구·절 + 보조사 (은/는, 만, 도)	영희는 <u>철수만</u> 좋아한다. 영희는 밥도 못 먹었다.
체언 또는 체언 역할을 하는 구·절 (목적격 조사가 생략됨.)	어제 친구 만나서 뭐 했어? 영화 봤어.



▲ 목적격 조사 '을/를'을 줄여서 'ㄹ'로 목적어를 나타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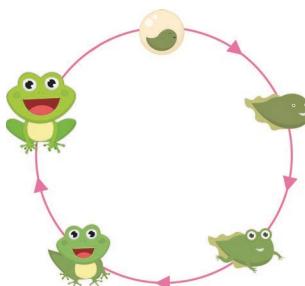


▲ 보조사와 목적격 조사가 나란히 쓰여 목적어를 나타내기도 한다.

4 보어: 주어와 서술어만으로는 뜻이 완전하지 못한 문장에서, 불완전한 내용을 보충하는 문장 성분으로, '되다, 아니다'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 중 주어가 아닌 것이다.

보어의 형태	예
체언 또는 체언 역할을 하는 구·절 + ❷ 보격 조사 (이/가)	영재는 <u>어른이</u> 아니다. 누리는 우리 반 대표가 되었다. 선미가 집에 간 것은 그가 싫어서가 아니다.
체언 또는 체언 역할을 하는 구·절 + 보조사 (은/는, 만, 도)	누리는 학교 대표도 되었다. 그는 수영을 잘하지만 수영 선수는 아니다.
체언 또는 체언 역할을 하는 구·절 (보격 조사가 생략됨.)	밥먹고 바로 누우면 소 된다.

* 보어와 주어의 구분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었다.

→ 주어 '올챙이가'는 '개구리'가 된 주체를 나타내는 말이고, 보어 '개구리가'는 '되다' 앞에서 '올챙이가' 무엇이 되었는지 의미를 보충하는 말임.

❶ 목적어의 특징

① 목적어의 위치

목적어는 보통 서술어 앞에 오지만, 서술어를 수식하는 부사어 앞에 올 수도 있다.

예 철수가 그림을 그린다.
서술어

철수가 그림을 [잘] 그린다.
부사어

② 두 번 이상 나타남.

목적어는 한 문장에 두 번 이상 나타날 수 있다.

예 그녀는 책을 두 권을 샀다.
목적어 ① 목적어 ②

③ 생략할 수 있음.

똑같은 목적어가 반복되거나 문맥상 목적어가 분명할 때 목적어를 생략할 수 있다.

예 너 그 영화 봤어?
응. (그 영화) 봤어.
목적어 생략

11 DAY

❷ 보격 조사와 주격 조사

주격 조사와 보격 조사는 형태가 동일하기 때문에 주어와 보어를 구분할 때 주의하여야 한다.

주격 조사 ↗ 보격 조사
예 물이 얼음이 되었다.
주어 보어

주격 조사 ↗ 보격 조사
예 얼음이 물이 되었다.
주어 보어



수능 개념별 기출문제

개념 19 ~ 개념 22

개념 19 문장의 구성 단위와 문장 성분

- 문장 성분: 문장 안에서 문장을 구성하면서 일정한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부분

행위의 주체	행위의 대상	행위
❶ 와! 이제야 진수가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구나)	주어	관형어
독립어 부사어	관형어	목적어
주어를 이루는 명사구	서술어	어절

❷ 저 학생이 철수이다.

관형어 주어

—목적어를 이루는 명사절

❸ 우리는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다.

주어 서술어

H01 ***

2017(6월)/고2 교육청 14

〈보기〉의 수업 상황에서, 밑줄 친 물음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번 시간에는 문장을 구성할 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성분인 주성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성분에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있습니다. 주어는 문장에서 동작 또는 상태나 성질의 주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서술어는 주어의 동작, 상태, 성질 따위를 풀이하는 기능을 하는 성분입니다. 서술어의 동작 대상이 되는 문장 성분을 목적어라고 하고, 서술어 ‘되다, 아니다’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 중에서 주어를 제외하고 조사 ‘이/가’가 붙은 것을 보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장의 주성분에 대해 알아볼까요?

- ㄱ. 철수의 동생이 사진을 찍었다.
ㄴ. 언니는 올해 대학생이 되었다.

- 그의 ‘찍었다’는 ‘동생’의 동작을 풀이하는 서술어입니다.
- ㄴ의 ‘올해’는 ‘되었다’가 꼭 필요로 하므로 주성분입니다.
- ㄱ에는 목적어가 있지만, ㄴ에는 목적어가 없습니다.
- ㄱ과 ㄴ에는 주어가 하나씩 있습니다.
- ㄱ과 ㄴ에는 주성분의 종류가 세 가지씩 있습니다.

H02 ***

2017(10월)/교육청 11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 드디어 나도 일을 끝냈다.
㉡ 벌써 바깥이 칠흑같이 어둡다.
㉢ 신임 장관은 이번 회의에 참석한다.
㉣ 새 컴퓨터가 순식간에 고물이 되었다.

- ㉠과 ㉡에서 주어는 명사구에 조사가 붙은 형태이다.
- ㉠과 ㉢에서 격 조사가 문장의 주어를 나타내 주고 있다.
- ㉡과 ㉣에서 주어는 서술어가 나타내는 동작의 주체이다.
- ㉢과 ㉣에서 주어는 체언 구실을 하는 구에 조사가 붙은 형태이다.
- ㉣에서는 상태의 변화를 의미하는 서술어의 영향으로 주어가 두 번 쓰였다.

개념 20 주성분

- 주성분: 문장의 골격을 이루는 필수적 문장 성분

주어	문장에서 동작이나 작용, 성질이나 상태의 주체를 나타내는 문장 성분
서술어	문장에서 주어의 동작이나 작용, 성질이나 상태 등을 나타내는 문장 성분
목적어	문장에서 서술어의 동작 대상이 되는 문장 성분
보어	주어를 제외하고 ‘되다, 아니다’와 같은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

H03 ***

2017(3월)/교육청 12

〈보기〉의 ①~⑤에 대한 탐구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서술어의 자릿수란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를 의미한다. 그런데 서술어는 문장에서 사용되는 의미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 달라지기도 한다.

	의미	예문
살다	불 때위가 타거나 비치고 있는 상태에 있다.	바람 때문에 불씨가 다시 ㉠ 살았다.
	본래 가지고 있던 특징 때위가 그대로 있거나 뚜렷이 나타나다.	이 한 구절로 글이 ㉡ 살았다.
	어떤 직분이나 신분의 생활을 하다.	그는 조선 시대에 오랫동안 벼슬을 ㉢ 살았다.
놓다	계속해 오던 일을 그만 두고 하지 아니하다.	그는 잠시 일손을 ㉣ 놓았다.
	잡거나 쥐고 있던 물체를 일정한 곳에 두다.	형은 책을 책상 위에 ㉤ 놓았다.

H09 ***

2021(10월)/교육청 37

<보기>의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옳은 것은?

<보기>

선생님: 문장에서 부사어는 다양한 형태로 실현됩니다. 명사에 부사격 조사가 결합하여 부사어로 쓰이는 경우도 그 중 하나입니다. 다음의 Ⓐ~Ⓑ 중 관형사절이 꾸미고 있는 명사에 부사격 조사가 붙은 형태를 찾아볼까요?

- 오늘의 행복은 Ⓐ 내일의 성공만큼 중요하다.
- 이곳의 토양은 Ⓑ 토마토 농사를 짓기에 적합하다.
- 너는 Ⓒ 너에게 주어진 문제만 해결해서는 안 된다.
- 형은 Ⓓ 머리가 덜 마른 상태로 국어 교과서를 읽었다.
- Ⓔ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은 나에게 많은 자극을 주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개념 22 독립 성분

01.04

1. 개념: 문장에서 느낌이나 감정의 표현을 나타내는 문장 성분

2. 특징

(1) 자유롭게 위치함.

예) 세상에, 이제야 일어났니? / 이제야 일어났니? 세상에.

(2) 생략하여도 문장이 성립함.

예) (아), 이름다운 풍경이구나!

H10 ***

2010(6월)/평가원 12

<보기>를 통해 감탄사의 특성을 파악하는 활동을 해 보았다. 다음 설명 중 적절한 것은?

<보기>

아 들: 아버지, 저도 바둑을 배워서 명인이 되고 싶어요.
 아버지: ㉠ 뭐, 명인이 된다고?
 아 들: ㉡ 예, 그러니까 바둑판 하나 사주세요.
 아버지: ㉢ 글쎄, 사 줘야 되나?
 아 들: 사 주세요, ㉣ 예?
 아버지: 얼마 전에 농구 선수가 되겠다고 해서 농구공을 사줬더니 작심삼일이었잖아. 이번에도 흐지부지할 거지?
 아 들: 그런데, ㉤ 을, 작심삼일이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그건 결심이 사흘을 가지 못한다는 말인데, 이번에도 그러는 거 아니냐고.
 아 들: ㉥ 아니요, 이번에는 다를 거예요.
 아버지: 명인이 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
 아 들: ㉦ 글쎄요, 잘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 볼게요.

- ㉠은 더 이상 여러 말 할 것 없다는 뜻으로 하는 말이겠군.
- ㉡은 긍정하여 대답하는 의미로, ㉢은 상대방을 의식하지 않고 놀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군.
- ㉣이 ㉤처럼 나타나는 것을 보면, 감탄사도 상대에 따라 다른 형태로 쓰일 수 있군.
- ㉤이 문장의 중간에 쓰인 것을 보면 독립어의 기능을 할 수 없겠군.
- ㉥은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의 ‘아니’와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이겠군.

11 DAY

2등급 킬러 문제

H11 2등급 킬러

2022/수능(홀) 38

밀줄 친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 성분의 개수와 종류가 <보기>의 문장과 같은 것은?

<보기>

이곳의 지형은 외적의 침입을 막기에 유리하다.

- 그 광물이 원래는 귀금속에 속했다.
- 그는 바람이 불기에 옷깃을 여몄다.
- 우리는 원두막을 하루 만에 지었다.
- 나는 시간이 남았기에 그와 걸었다.
- 나는 구호품을 수해 지역에 보냈다.



단어의 구조와 구성 방식을 파악하는 문제

1등급 칼라 문제 특강

- **S01** 유형은 단어나 문장의 구성 방식을 제시하고, 해당 방식에 따라 구성된 것을 고르는 형태로 주로 출제된다.

[S01~0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는 단어의 의미와 유래를 통해 단어에 담긴 언증의 인식과 더불어 시대상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단어의 구조를 통해 단어 구성 방식도 이해할 수 있다.

유길준의 《서유견문》(1895)에는 ‘원어기(遠語機)’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영어의 ‘telephone’에 해당하는 단어로 ‘말을 멀리 보내는 기계’라는 뜻이다. 오늘날의 ‘전화기(電話機)’가 ‘전기를 통해 말을 보내는 기계’의 뜻이라는 점과 비교해 보면 ‘원어기’는 말을 ‘멀리’ 보내다는 점에, ‘전화기’는 말을 ‘전기로’ 보내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단어이다. 이처럼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는 달라지기도 한다. 또한 개화기 사전에 등장하는 ‘소젖메쥬(소젖메주)’처럼 새롭게 유입된 대상을 일상의 단어로 표현한 경우도 있다. ‘소젖메쥬’는 ‘치즈(cheese)’에 대응하는 단어인데, 간장과 된장의 재료인 ‘메주’라는 일상의 단어를 통해 대상을 인식했음을 보여 준다.

한편, 《가례언해》(1632)에 따르면 ‘총각(總角)’은 ‘머리를 땋아 갈라서 틀어 맴’을 이르는 말이었으나 그러한 의미는 사라지고 오늘날에는 ‘결혼하지 않은 성년 남자’를 뜻한다. 특정한 행위를 나타내던 단어가 이와 관련된 사람을 지시하는 말로 그 의미가 변화한 것이다. 여기에서 남자도 머리를 땋아 묶었던 과거의 관습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부대찌개’ 역시 한국 전쟁 이후 미군 부대에서 나온 재료로 찌개를 끓였던 것에서 유래한 단어라는 점에서 시대의 흔적을 담고 있다.

우리는 단어의 구조를 통해 단어가 구성되는 방식도 파악할 수 있다. 《한불자전》(1880)에는 이전 시기의 문헌에서는 볼 수 없었던 ‘두길보기’와 ‘산돌이’가 등장한다. “양쪽 모두의 눈치를 보는 사람”으로 풀이된 ‘두길보기’의 ‘두길’은 ① 관형사가 후행하는 명사를 수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장소를 일 년에 한 번만 지나가는 큰 호랑이”로 풀이된 ‘산돌이’는 ② 단어의 구성 요소들이 의미상 목적어와 서술어의 관계로 이루어져 ‘산을 돌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예전에도 오늘날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단어를 만들어 생각을 표현하고 있었던 셈이다.

S01 ★ 1등급 칼라

2021/수능(홀) 11

①과 ⑤를 모두 충족하는 단어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새해맞이, 두말없이, 숨은그림찾기, 한몫하다

- ① 새해맞이, 숨은그림찾기, 한몫하다
- ② 두말없이, 숨은그림찾기, 한몫하다
- ③ 두말없이, 숨은그림찾기
- ④ 새해맞이, 한몫하다
- ⑤ 새해맞이

S02 ***

2021/수능(홀) 12

윗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립스틱’을 여성들이 입술에 바르던 염료인 ‘연지’라는 단어를 사용해 ‘입술연지’라고도 했다.
- ‘변사’는 무성 영화를 상영할 때 장면에 맞추어 그 내용을 설명하던 직업을 가진 사람을 뜻한다.
- ‘수세미’는 박과의 한해살이 덩굴풀을 뜻하는데, 그 열매 속 섬유로 그릇을 닦았다. 오늘날 공장에서 만든 설거지 도구도 ‘수세미’라고 한다.
- ‘혁대’의 순화어로 ‘가죽으로 만든 띠’라는 뜻의 ‘가죽띠’와 ‘허리에 매는 띠’라는 뜻의 ‘허리띠’가 제시되어 있다.
- ‘양반’은 조선시대 사대부를 이르는 말이었지만 지금은 ‘점잖은 사람’의 뜻으로 주로 쓰인다.

- ① ‘입술연지’는 ‘소젖메쥬’처럼 일상의 단어로 새로운 대상을 인식한 예로 볼 수 있겠군.
- ② ‘변사’는 무성 영화와 관련해 쓰인 단어라는 점에서 시대성이 반영된 예에 해당하겠군.
- ③ ‘수세미’는 기존의 의미에 새로운 의미가 더해졌다는 점에서 ‘총각’과 유사하겠군.
- ④ ‘가죽띠’는 ‘재료’에, ‘허리띠’는 ‘착용하는 위치’에 초점을 둔 단어라는 점에서 서로 다른 인식이 반영된 것이겠군.
- ⑤ ‘양반’은 신분의 구분이 있었던 사회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시대의 흔적을 담고 있겠군.

[지문 분석 특강]

① 문단 요약: 단어를 통한 언중의 인식과 시대상 및 단어 구성 방식 파악

② 문단 요약: '원어기'와 '소겟메쥬'에 담긴 언중의 인식

원어기	'말을 멀리 보내는 기계'라는 뜻으로, 말을 '멀리' 보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인식함.
소겟메쥬	'치즈'에 대응하는 단어로, '메주'라는 일상의 단어를 통해 인식함.

③ 문단 요약: '총각'과 '부대찌개'에 담긴 시대상

총각	'머리를 땋아 갈라서 틀어 맴'이라는 뜻으로, 남자도 머리를 땡아 묶었던 과거의 관습을 짐작할 수 있음.
부대찌개	한국 전쟁 이후 시대상을 파악할 수 있음.

④ 문단 요약: 단어의 구조를 통한 단어 구성 방식 파악

두길보기	'두길'은 관형사가 후행하는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를 가짐.
산돌이	단어의 구성 요소들이 의미상 목적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가짐.

[문제 분석 특강]

S01 내용 파악하기

㉠과 ㉡을 모두 충족하는 단어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과 ㉡: ㉠은 '관형사가 후행하는 명사를 수식'하는 것, ㉡은 '단어의 구성 요소들이 의미상 목적어와 서술어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 <보기>: 관형사가 후행하는 명사를 수식하면서 단어의 구성 요소들이 의미상 목적어와 서술어의 관계로 이루어진 단어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 <보기>의 단어 중 관형사가 후행하는 명사를 수식하면서 단어의 구성 요소들이 의미상 목적어와 서술어의 관계로 이루어진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① 새해맞이, 숨은그림찾기, 한몫하다

↳ 숨은그림찾기: '숨은그림'에서 '숨은'은 관형사가 아닌, '숨다'라는 동사의 어간 '숨-'에 관형사형 어미 '-은'이 결합하여 용언의 관형사형이 된 형태입니다. 따라서 ㉠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② 두밀없이, 숨은그림찾기, 한몫하다

↳ '두말이 없다'를 의미하여 단어의 구성 요소들이 의미상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③ 새해맞이, 한몫하다 (○)

↳ · 새해맞이: '새해'에서 관형사 '새'가 후행하는 명사 '해'를 수식하고 있으므로 ㉠을 충족합니다. 또한 '새해맞이'는 '새해를 맞이하는 일'을 의미하여 단어의 구성 요소들이 의미상 목적어와 서술어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도 충족합니다.

· 한몫하다: '한몫'에서 관형사 '한'이 후행하는 명사 '몫'을 수식하고 있으므로 ㉠을 충족합니다. 또한 '한몫하다'는 '한몫을 하다'를 의미하여 단어의 구성 요소들이 의미상 목적어와 서술어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도 충족합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③!**



이 유형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단어와 문장의 구성 방식을 알고, 주어진 단어나 문장을 분석하여 구성 방식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S02 내용 파악하기

윗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윗글:** 윗글에서는 단어에 담겨 있는 시대상을 파악하고, 단어의 구조와 구성 방식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어는 '원어기'처럼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표현하기도 하며, '소겟메쥬'처럼 일상의 단어를 통해 대상을 인식하기도 합니다. 또한 '총각'이나 '부대찌개' 등을 통해 시대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보기>: <보기>에는 '립스틱', '변사', '수세미', '혁대', '양반'과 이들의 의미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단어에 반영된 인식과 시대상을 추론한 것으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① '입술연지'는 '소겟메쥬'처럼 일상의 단어로 새로운 대상을 인식한 예로 볼 수 있겠군. (○)

↳ '입술연지'는 일상의 단어였던 '연지'로 새로운 대상인 '립스틱'을 인식한 예입니다. 이는 '소겟메쥬'처럼 일상의 단어였던 '메주'로 새로운 대상인 '치즈'를 인식한 것과 동일합니다.

② '변사'는 무성 영화와 관련해 쓰인 단어라는 점에서 시대상이 반영된 예에 해당하겠군. (○)

↳ 윗글의 '총각, 부대찌개'라는 단어가 시대의 흔적을 담고 있듯이, '변사'라는 단어도 무성 영화를 상영하던 시대상이 반영된 예입니다.

③ '수세미'는 기존의 의미에 새로운 의미가 더해졌다는 점에서 '총각'과 유사하겠군. (×)

<보기>에 따르면 '수세미'는 원래 박과의 한해살이 덩굴풀인 식물인데, 열매 속 섬유로 그릇을 닦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공장에서 만든 설거지 도구도 '수세미'라고 하는 것은 수세미가 원래 가지고 있던 식물로서의 의미에다가 '설거지 도구'라는 새로운 의미가 추가된 것입니다. 그러나 '총각'은 윗글의 3문단에 따르면 '머리를 땋아 갈라서 틀어 맴'을 이르는 말이었으나 오늘날에는 그러한 의미는 사라지고 '결혼하지 않은 성년 남자'를 뜻하게 되었습니다. 즉, 특정한 행위를 나타내던 단어가 이와 관련된 사람을 지시하는 말로 그 의미가 변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③!**

④ '가죽띠'는 '재료'에, '허리띠'는 '착용하는 위치'에 초점을 둔 단어라는 점에서 서로 다른 인식이 반영된 것이겠군. (○)

↳ '가죽띠'는 '가죽'이라는 재료로 만들어진 것에, '허리띠'는 '허리'에 차는 것에 초점을 둔 단어이므로 윗글의 '원어기'와 '전화기'처럼 서로 다른 인식이 반영된 예입니다.

⑤ '양반'은 신분의 구분이 있었던 사회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시대의 흔적을 담고 있겠군. (○)

↳ '양반'은 조선시대 사대부를 이르는 말이었지만 지금은 점잖은 사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원래 이 단어가 생겨났을 때의 신분의 구분이 있었던 시대상이 반영된 예입니다.



이 유형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단어의 형성 및 변화 과정을 이해하고, 주어진 단어를 분석하여 특징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언어와 매체 복합

2등급 유형 문제 특강

- 언어와 매체 복합 유형은 매체 자료에 제시된 문법 표현을 묻는 문제가 포함된 매체와 언어 복합 세트로 출제된다.

[U01~03] (가)는 종이 신문이고, (나)는 (가)의 기사를 보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를 검색한 화면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2022 수능 예시 40~42]

(가)

3면 2020년 2월 △△일 목요일 사회 제2456호 ○○신문

넘치는 '가짜 뉴스' … 사실 왜곡과 사회적 갈등 유발 심각

누리소통망 통해 빠르게, 널리 퍼져 '사실 뉴스'보다 더 많이 공유되기도

⑤ '가짜 뉴스'가 날로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거나며 사회적 문제를 해 누구나 뉴스를 생산하기하고 있다. 인터넷의 고 유포할 수 있게 되었발전과 스마트폰의 보급, 다른 점이 가짜 뉴스의 누리소통망의 발달 등 매 문제점을 심각하게 만들체 환경의 변화가 가짜 고 있다는 것이다. 뉴스의 파급력을 크게 키웠다는 분석이다.

○○에서는 '가짜 뉴스' 시기에 허위로 조작된 정개념과 대용 방안이라는 보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⑥)라고 분석하였다. ⑦) 실 토론 과정에서 매체 환경 제로 미국 일부 지역에서의 변화로 특히 뉴스의 는 '가짜 뉴스'가 잘못된 생산과 유포 양상이 바뀌여 뉴스를 형성하여 사회적 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갈등을 유발하였다.

세계 도시 63% 하계 올림픽 개최 곤란 2050년… "지구 온난화 영향 탓"

2050년 세계에는 어려움에 걸친 올림픽 개최권 기회가 사라질 것을 전망되고, ○○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가 세계에 전면화되면서 2050년에는 세계 도시를 중심으로 40% 이상에서 온난화로 인해 온난화가 예상되는 것. 이미 인간의 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구 온난화의 진행을 막아야 한다. 온실 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국제적 협약을 달성하지 않으면 세계 온난화가 견디다.

기사 출처: www.kookmin.co.kr

미세 플라스틱, 1주에 신용카드 1장 삼켜

미세 플라스틱과 같은 미세顆粒污染物가 급격히 증가, 미세 플라스틱과 같은 미세顆粒污染物에 대한 관심도 있는 연구와 플라스틱 소재제품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미흡한 편이다. 사진: 김민경

기사 출처: www.kookmin.co.kr

(나)

인터넷 포털 가짜 뉴스

뉴스 검색도순 최신순

⑧ 가짜 뉴스 규제만이 해결책일까 18분 전 □□일보 가짜 뉴스의 폐해를 지적하며 규제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물론이고 여야 정치권, 시민 단체……

⑨ 정부, 가짜 뉴스 막을 민간 팩트 체크 기관 지원한다 1시간 전 △△신문 정부가 올해 허위 조작 정보(가짜 뉴스)를 막기 위한 민간 팩트 체크 기관을 지원한다. 중간 광고·가상 광고 등……

◎ "정부의 가짜 뉴스 규제, 위헌 소지" 2시간 전 ☆☆일보 최근 정부에서 주도하는 가짜 뉴스 규제와 관련하여 국가가 가짜 뉴스를 규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정부, 가짜 뉴스 방지 '여전' 3시간 전 ◇◇일보 가짜 뉴스를 근절하겠다는 선언과 달리 정부는 여전히 가짜 뉴스를 방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 감시 활동을……

U01 ***

2022 수능 예시 40

(가)와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는 각 기사의 본문 내용이, (나)는 표제의 크기가 독자의 기사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 (가)와 달리 (나)는 각 기사의 표제뿐만 아니라 부제의 내용과 표현도 독자의 주의를 끄는 요인이 된다.
- (가)와 달리 (나)는 기사의 배열 기준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독자의 필요에 따라 순서를 재배열하여 활용할 수 있다.
- (나)와 달리 (가)는 기사마다 제공되는 시간이 다르므로 독자가 언제 검색하느냐에 따라 노출되는 기사에 차이가 있다.
- (나)와 달리 (가)는 한 면에서 여러 언론사의 기사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정보를 접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다.

U02 ***

2022 수능 예시 41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에 적용된 '게이트 키핑'에 대해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선생님: 세상의 모든 일이 뉴스가 되는 건 아니에요. 언론사는 뉴스를 생산할 때 '게이트 키핑'이라는 과정을 거쳐요. 기자나 편집자 같은 뉴스 결정권자가 언론사의 입장에 따라 어떤 것을 기사로 쓸 것인지, 어떤 기사를 더 비중 있게 다룰 것인지 등을 결정하는 과정이에요. 신문의 경우, 비중 있게 다루려는 기사를 지면의 윗부분에 크게 배치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포털 사이트에서도 게이트 키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포털 사이트의 뉴스는 각 언론사의 기사를 그대로 게재하기도 하고, 포털 사이트의 뉴스 편집자가 다시 게이트 키핑을 하여 기사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기도 해요.

- ① (가)의 언론사는 ‘가짜 뉴스’ 관련 기사를 ‘지구 온난화’와 ‘미세 플라스틱’ 관련 기사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기로 결정한 것이겠군요.
- ② (가)의 ‘지구 온난화’, ‘미세 플라스틱’ 관련 기사가 (나)에 없는 것은 입력된 검색어와 상관없이 포털 사이트의 뉴스 편집자가 게재 여부를 결정했기 때문이겠군.
- ③ (나)의 ①~④를 생산한 언론사가 서로 다른 것으로 보아 복수의 언론사가 ‘가짜 뉴스’와 관련된 기사를 보도하기로 결정한 것이겠군.
- ④ (나)의 ①은 가짜 뉴스 규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는 언론사의 입장을, ②는 정부의 정책을 사실적으로 보도하려는 언론사의 입장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⑤ (나)의 ③, ④ 기사를 낸 각 언론사들은 정부의 가짜 뉴스 대책과 관련된 기사를 생산할 때 서로 입장을 달리 한 것이겠군.

U03 ***

2022 수능 예시 42

(가)의 언어적 특성을 고려할 때, ⑦~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고 있다’를 써서 기사에서 주목하는 사건이 진행 중임을 표현하였다.
- ② ㉡: 피동 표현을 통해 ‘지적’한 주체는 드러내지 않고 ‘지적’된 내용을 기사에 제시하였다.
- ③ ㉢: 직접 인용 표현을 써서 다른 나라의 사례를 기사에서 사실적으로 전달하였다.
- ④ ㉣: 연결 어미를 사용하여 앞 절과 뒤 절이 인과 관계로 이어짐을 기사에서 나타내었다.
- ⑤ ㉤: 지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기사 내의 정보들을 응집성 있게 나타내었다.

U01 매체의 유형과 특성 파악하기

- 이 문제는 종이 신문과 인터넷 뉴스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문제 풀이의 핵심 key이다.

(가)와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각 기사의 ~~본문 내용이~~, (나)는 ~~표제의 크기가~~ 독자의 기사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
 ↗ (가)는 한 면에 여러 기사가 있기 때문에 눈에 잘 띠는 표제의 크기가 독자의 기사 선택에 영향을 미쳐요. (나)는 표제의 크기가 모두 동일 하므로 독자의 기사 선택에 표제의 크기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 ② (가)와 달리 (나)는 각 기사의 표제뿐만 아니라 ~~부제의 내용과 표현도~~ 독자의 주의를 끄는 요인이 된다. (×)
 ↗ (가)는 ‘누리소통망 통해 빠르게, 널리 퍼져 ‘사실 뉴스’보다 더 많이 공유되기도’와 같이 부제를 제시하여 독자의 주의를 끌고 있어요. 하지만 (나)에는 부제가 드러나 있지 않아요.
- ③ (가)와 달리 (나)는 기사의 배열 기준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독자의 필요에 따라 순서를 재배열하여 활용할 수 있다. (○)
 ↗ (가)는 독자가 필요에 따라 기사의 순서를 재배열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나)는 독자의 필요에 따라 ‘관련도순, 최신순’에 따라 기사를 재배열하여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정답은 ③!**
- ④ ~~(나)와 달리 (가)는~~ 기사마다 제공되는 시간이 다르므로 독자가 언제 검색하느냐에 따라 노출되는 기사에 차이가 있다. (×)
 ↗ (가)는 같은 호에 게재되는 기사는 제공되는 시간이 모두 동일해요. 반면 (나)는 각 언론사에서 쓴 기사를 검색 결과에 따라 정렬한 것으로, 독자가 언제 검색하느냐에 따라 노출되는 기사에 차이가 있어요.
- ⑤ ~~(나)와 달리 (가)는~~ 한 면에서 여러 언론사의 기사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정보를 접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다. (×)
 ↗ (가)는 한 언론사에서 발행한 종이 신문으로, 한 면에 여러 기사가 있지만 같은 언론사의 기사예요. 반면 (나)는 한 화면에서 여러 언론사의 기사를 확인할 수 있어 다양한 정보를 접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어요.

U02 매체 유형의 특성 이해하기

- 이 문제는 뉴스 생산 과정에서 언론사와 포털 사이트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문제 풀이의 핵심 key이다.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에 적용된 ‘게이트 키핑’에 대해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게이트 키핑’에 대해 설명한 내용입니다.
- (가): 종이 신문으로, ‘가짜 뉴스’, ‘지구 온난화’, ‘미세 플라스틱’ 관련 기사입니다.
- (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한 결과로 나타난 ‘가짜 뉴스’를 다른 기사들입니다.
- 종이 신문과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한 뉴스에 게이트 키핑이 각각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었는지 잘못 설명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기]

선생님: ❶ 세상의 모든 일이 뉴스가 되는 건 아니에요. ❷ 언론사는 뉴스를 생산할 때 ‘게이트 키핑’이라는 과정을 거쳐요. ❸ 기자나 편집자 같은 뉴스 결정권자가 언론사의 입장에 따라 어떤 것을 기사로 쓸 것인지, 어떤 기사를 더 비중 있게 다룰 것인지 등을 결정하는 과정이에요. ❹ 신문의 경우, 비중 있게 다루려는 기사를 지면의 윗부분에 크게 배치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❺ 신문에서 게이트 키핑을 하는 방법 포털 사이트에서도 게이트 키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❻ 포털 사이트의 뉴스는 각 언론사의 기사를 그대로 게재하기도 하고, 포털 사이트의 뉴스 편집자가 다시 ❼ 포털 사이트 뉴스에서 게이트 키핑을 하여 기사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기도 해요.

- ① (가)의 언론사는 ‘가짜 뉴스’ 관련 기사를 ‘지구 온난화’와 ‘미세 플라스틱’ 관련 기사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기로 결정한 것 이겠군. (○) *근거: <보기> ❾ 문장
- ❷ (가) 종이 신문에서는 가짜 뉴스와 관련된 기사가 윗부분에 크게 배치되어 있어요. 따라서 (가)의 언론사는 가짜 뉴스 기사를 다른 기사보다 중요하게 다루었음을 알 수 있어요.
- ❸ (가)의 ‘지구 온난화’, ‘미세 플라스틱’ 관련 기사가 (나)에 없는 것은 입력된 검색어와 상관없이 포털 사이트의 뉴스 편집자가 ❼ 게재 여부를 결정했기 때문이겠군. (×)
- ❹ 포털 사이트 뉴스는 검색한 검색어와 관련된 기사를 보여 주기 때문에 검색하지 않은 기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따라서 편집자가 기사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이 없어요. **그러므로 정답은 ❽!**
- ❺ (나)의 ①~④를 생산한 언론사가 서로 다른 것으로 보아 복수의 언론사가 ‘가짜 뉴스’와 관련된 기사를 보도하기로 결정한 것 이겠군. (○) *근거: <보기> ❾ 문장
- ❻ (나)에는 가짜 뉴스를 다룬 여러 언론사가 등장해요. 이를 통해 복수의 언론사가 가짜 뉴스와 관련된 기사를 다루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 ❼ (나)의 ⑤는 가짜 뉴스 규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는 언론사의 입장을, ⑥는 정부의 정책을 사실적으로 보도하려는 언론사의 입장을 드러낸 것 이겠군. (○) *근거: <보기> ❾ 문장
- ❽ (나)의 ⑦는 의문을 제기하며 가짜 뉴스 규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는 언론사의 입장을 드러내고 있어요. (나)의 ⑧은 정부가 가짜 뉴스를 막을 민간 팩트 체크 기관을 지원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정부의 정책을 사실적으로 보도하려는 언론사의 입장을 드러내고 있어요.
- ❾ (나)의 ⑨는 가짜 뉴스를 규제하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규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어요. 반면, ⑩는 가짜 뉴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어요.

U03 매체의 언어적 특성 이해하기

- 이 문제는 시간 표현, 피동 표현, 인용 표현 등의 문법 요소를 이해하는 것이 문제 풀이의 핵심 key이다.

(가)의 언어적 특성을 고려할 때, ⑦~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가)의 언어적 특성:** 표제는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본문은 정확성, 명료성, 간결성을 띍니다. 그리고 내용의 전문 기관의 말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 ⑦~⑩: ⑦은 가짜 뉴스의 사회적 문제, ⑧은 매체 환경의 변화, ⑨은 선거에 미친 허위 정보의 영향, ⑩은 가짜 뉴스로 인한 사회적 갈등, ⑪은 가짜 뉴스에 대한 논의에 관한 내용을 담은 문장입니다.

즉 ⑦~⑩ 문장에 사용된 문법 요소에 대한 잘못된 설명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① ⑦: ‘~고 있다’를 써서 기사에서 주목하는 사건이 진행 중임을 표현하였다. (○)

❷ ‘~고 있다’는 진행의 동작상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이를 통해 ⑦은 기사가 주목하고 있는 가짜 뉴스가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진행 중임을 드러내고 있어요.

- ❸ ⑧: 피동 표현을 통해 ‘지적’한 주체는 드러내지 않고 ‘지적’된 내용을 기사에 제시하였다. (○)

❹ ‘지적되었다’는 피동 표현으로, ⑧은 ‘뉴스의 생산과 유포 양상이 바뀌었다’는 지적 내용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적한 주체는 드러내지 않았어요.

- ❺ ⑨: ❼ 직접 인용 표현을 써서 다른 나라의 사례를 기사에서 사실적으로 전달하였다. (×)

❻ 직접 인용 표현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있는 그대로 가져오는 것으로 큰 따옴표(“ ”)와 직접 인용을 나타내는 조사인 ‘라고’가 사용돼요. 그러나 ⑨은 미국의 △△ 기관이 분석한 내용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였다.’처럼 간접 인용 표현을 썼어요. **그러므로 정답은 ❽!**

- ❻ ⑩: 연결 어미를 사용하여 앞 절과 뒤 절이 인과 관계로 이어짐을 기사에서 나타내었다. (○)

❻ ⑩에서는 ‘~여’라는 연결 어미를 통해 ‘가짜 뉴스가 잘못된 여론을 형성하였다.’라는 원인과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였다.’라는 결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요.

- ❽ ⑪: 지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기사 내의 정보들을 응집성 있게 나타내었다. (○)

❻ ⑪에서는 ‘이 토론회’와 ‘이와 함께’에서 ‘이’라는 지시 표현을 통해 앞 문장과 적절하게 연관성을 형성하고 있어요. ‘이 토론회’의 ‘이’는 (가) 본문의 2문단에서 언급한 ‘가짜 뉴스 개념과 대응 방안’이라는 토론회를 가리키고, ‘이와 함께’의 ‘이’는 2문단의 뉴스의 생산과 유포 양상이 바뀌었다는 점, 3문단의 가짜 뉴스가 사회적 갈등을 유발했다는 점 등을 가리켜요. 이처럼 지시 표현을 사용하면 내용에 응집성을 높일 수 있어요.

언매 복합 유형 풀이 비법

❶ 제시된 담화 상황을 이해한다.

❷ 담화 표현(접속 표현, 지시·대용 표현 등), 문법 요소(높임·시간 표현 등), 어미나 조사 등 어떤 문법 표현을 사용했는지 파악한다.

❸ 문법 표현의 사용 양상과 표현 효과를 연결하여 파악한다.



차 례

PART

1 언어

A 언어와 음운	2
B 음운 변동 I – 음운 교체	4
C 음운 변동 II – 음운 탈락 · 첨가 · 축약	9
D 단어의 구조와 형성	25
E 품사 I – 체언, 용언	45
F 품사 II –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57
G 단어의 의미 관계	61
H 문장 성분	77
I 문장 구조	82
J 문법 요소 I – 종결 · 높임 · 시간 표현	97
K 문법 요소 II – 피동 · 사동 · 부정 · 인용 표현	104
L 담화	117
M 한글 맞춤법	124
N 표준 발음법	136
O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144
P 한글의 창제 원리	145
Q 중세 · 근대 · 현대 국어의 비교	147
R 개념 복합 유형	167
S 지문 복합 유형	170

PART

2 매체

T 매체	251
U 언어와 매체 복합	302



A 언어와 음운

A 01 정답 ① *음절의 개념과 특성 파악하기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국어의 ‘음절’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자료>: 음절의 정의와 현대 국어의 음절 유형에 관한 내용입니다.
- ▣ 자료를 바탕으로 국어의 ‘음절’에 대해 잘못 설명한 내용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료>

음운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소리의 결합체를 음절이라고 한다.
말의 뜻을 구별하여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현대 국어의 음절 유형은 다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중성’으로 이루어진 음절 (예 아, 야, 와, 의)
초성 자리에 오는 ‘ㅇ’은 자리를 채우기 위한 것일 뿐, 음자를 가지지 않음.
- ‘초성+중성’으로 이루어진 음절 (예 끼, 노, 며, 소)
- ‘중성+중성’으로 이루어진 음절 (예 알, 억, 영, 완)
- ‘초성+중성+중성’으로 이루어진 음절 (예 각, 녹, 딸, 형)

>오늘 정답? [정답률 86%]

① 초성에는 최대 두 개의 자음이 온다.

된소리는 하나의 자음으로 간주하므로 자음이 한 개만 올 수 있음.

<자료>의 ㄴ과 ㄹ에서 ‘끼’나 ‘딸’은 ‘초성+초성’으로 나타내지 않고 ‘초성’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된소리를 하나의 자음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우리 말 음절의 초성 자리에는 자음이 둘 이상 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늘 오답?

② 중성에 올 수 있는 음운은 모음이다.

모음만 올 수 있음.

ㄱ~ㄹ을 고려하면 중성 자리에 모음이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중성에 올 수 있는 음운은 자음이다.

자음만 올 수 있음.

ㄷ과 ㄹ을 고려하면 중성 자리에는 자음이 올 수 있다.

④ 초성 또는 종성이 없는 음절도 있다.

초성이 없는 경우: ㄱ, ㄷ / 종성이 없는 경우: ㄱ, ㄴ

ㄱ에서는 초성과 종성 없이 중성만으로 음절을 이루었다. 또한 ㄷ은 초성 없이, ㄴ은 종성 없이 음절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초성 또는 종성이 없는 음절도 있다.

⑤ 모든 음절에는 중성이 있어야 한다.

ㄱ~ㄹ에서 모두 중성이 있음.

ㄱ~ㄹ을 고려하면 초성 또는 종성이 없는 음절은 있으나 중성이 없는 음절은 없으므로, 모든 음절에는 중성이 있어야 한다.

<보기>

선생님: 최소 대립쌍이란 하나의 소리로 인해 뜻이 구별되는 단

어의 짝을 말해요. 가령 최소 대립쌍 ‘살’과 ‘쌀’은 ‘ㅅ’과 ‘ㅆ’으로 인해 뜻이 달라지는데, 이때의 ‘ㅅ’, ‘ㅆ’은 음운의 자격을 얻게 되죠. 이처럼 최소 대립쌍을 이용해 음운들을 추출하면 음 말의 뜻을 구별하여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운 체계를 수립할 수 있어요. 이제 고유어들을 모은 [A]에서 최소 대립쌍들을 찾아 음운들을 추출하고, 그 음운들을 [B]에서 확인해 봅시다.

[A] 쉬리, 마루, 구실, 모래, 소리, 구슬, 머루

[B] 국어의 단모음 체계

혀의 앞뒤 입술 모양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발음할 때에 동 글게 오므리지 않는 입술	원순 발음할 때에 동 글게 오므리는 입술	평순	원순
고모음		귀	—	━
중모음	ㅔ	ㅚ	ㅓ	ㅗ
저모음	ㅐ		ㅏ	

[학생의 탐구 내용]

추출된 음운들 중 ①을 확인할 수 있군.

>오늘 정답? [정답률 64%]

③ 3개의 평순 모음

‘ㅣ’, ‘ㅓ’, ‘ㅗ’, ‘ㅡ’ → 4개

<보기>의 [A]에서 찾을 수 있는 최소 대립쌍은 ‘쉬리/소리’와 ‘마루/머루’, ‘구실/구슬’이다. 각각 음운 ‘귀/━’, ‘━/━’, ‘━/━’로 인해 뜻이 구별된다. 이 중 ‘━’, ‘ㅓ’, ‘━’, ‘ㅡ’는 평순 모음이고 ‘귀’, ‘ㅗ’는 원순 모음이다.

>오늘 오답?

① 2개의 전설 모음

‘ㅣ’, ‘귀’ 2개

‘ㅣ’, ‘귀’는 전설 모음이고 ‘━’, ‘ㅓ’, ‘ㅗ’, ‘ㅡ’는 후설 모음이다.

② 2개의 중모음

‘ㅔ’, ‘ㅚ’ 2개

중모음에 해당하는 음운은 ‘ㅓ’, ‘ㅚ’이다.

④ 3개의 고모음

‘ㅣ’, ‘귀’, ‘ㅡ’ 3개

고모음에 해당하는 음운은 ‘ㅣ’, ‘귀’, ‘ㅡ’이다.

⑤ 4개의 후설 모음

‘━’, ‘ㅓ’, ‘ㅗ’, ‘ㅡ’ 4개

‘━’, ‘ㅓ’, ‘ㅗ’, ‘ㅡ’는 후설 모음이고 ‘ㅣ’, ‘귀’는 전설 모음이다.

A 02 정답 ③ *음운의 개념과 특성 파악하기

<보기>의 ⑦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최소 대립쌍의 정의와 이를 이용하여 추출한 음운 체계에 대해 말하고 있고, 단모음 체계를 정리한 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 <보기>의 [A]에 제시된 단어 중 음운을 찾아, 각 음운이 단모음 체계에서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잘못 정리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A 03 정답 ① *음운 변동 이해하기

<보기>의 ⑦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 <보기>: 조음 위치와 조음 방식에 따라 분류한 자음 체계와 두 자음이 만나서 발음될 때 일어나는 음운 변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 <보기>를 보고 주어진 예시에서 일어난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③ '맞고'의 '맞-'과 '맞서다가'의 '맞-'은 모두 ④에 속한다. 맞고의 '맞-'은 ④에 속함.

'맞고'의 형태소를 분석하면 어간인 '맞-'과 어미인 '-고'로 분석된다. 어간 '맞-'은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다른 대상에 의존하여 쓰이므로 ④에 속한다.

'맞서다가'의 '맞-'은 '마주' 또는 '서로 엇비슷한'의 뜻을 더하는 접사로 문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다른 대상에 의존하여 쓰이므로 ④에 속한다.

④ '바람에'에는 ⑤과 ⑥에 속하는 형태소만 있다. ⑤

'바람에'의 형태소를 분석하면 명사인 '바람'과 조사인 '에'로 분석된다. 명사 '바람'은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독립적으로 쓰일 수 있으므로 ⑤에 속한다.

조사 '에'는 문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다른 대상에 의존하여 쓰이므로 ⑥에 속한다.

개념 보충

형태소의 개념과 분류

형태소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최소 단위로, 자립성의 유무와 의미의 유형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자립성의 유무	자립 형태소	다른 형태소의 도움 없이 홀로 쓰일 수 있는 형태소 예) 꽃, 사과, 그리고, 고양이
	의존 형태소	홀로 쓰일 수 없고 항상 다른 형태소와 함께 쓰이는 형태소 예) 예쁘-, -다, 풋-, 쌩-
의미의 유형	실질 형태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태소 예) 사과, 하늘, 드디어, 마침내
	형식 형태소 (문법 형태소)	문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태소 예) 이/가, 을/를, -다, -니까

D 02 정답 ④ *형태소와 단어의 개념 이해하기

〈보기〉의 선생님 물음에 대한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형태소와 단어에 대해 언급한 후, ⑦~⑨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묻는 내용입니다.

즉 형태소와 단어의 특징을 바탕으로 ⑦~⑨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적절하게 설명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기〉

선생님: 지난 시간에 형태소와 단어에 대해 공부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다음 자료에서 ⑦, ⑧, ⑨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말해볼까요?

〈자료〉

• 이 문제는 나한테 묻지 말고 그에게 물어라.

⑦

• 귀로는 음악을 들었고 눈으로는 풍경을 보았다.

⑧

• 나는 산으로 가자고 했지만 동생은 바다로 갔다.

⑨

오늘 정답? [정답률 63%]

④ 공통점은 음운 환경에 따라 그 형태가 바뀐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⑦, ⑨만 문법적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⑦에서 '묻-'은 '-어라'와 같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물-'로 형태가 바뀐다.

⑧에서 '-았-'은 양성 모음 어간에 붙는 형태소이고, '-었-'은 음성 모음 어간에 붙는 형태소이다.

⑨에서 '은'은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붙고, '는'은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붙는다. 그러므로 ⑦, ⑧, ⑨ 모두 음운 환경에 따라 그 형태가 바뀐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용언의 어간은 실질 형태소에 해당하므로 ⑦만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고 어미인 ⑧과 조사인 ⑨은 문법적 의미를 나타낸다.

오늘 정답?

① 공통점은 단어의 자격을 가진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⑦만 실질적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⑨만 해당

⑦은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으로서 어간에 해당한다. ⑧은 용언에서 어간의 뒤에 붙는 부분으로서 어미에 해당한다. 또한 ⑨은 체언이나 부사, 어미 등의 뒤에 붙어서 다른 단어와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거나 특별한 의미를 첨가하여 주는 부분으로서 조사에 해당한다. 그런데 단어는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이나 이에 준하는 말, 또는 그 말의 뒤에 붙어서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말'이므로 ⑨만 단어의 자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② 공통점은 문법적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⑨만 단어의 자격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형식 형태소 → ⑦, ⑨

⑦은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으로서 어간에 해당한다. 그런데 용언의 어간은 실질 형태소에 해당하므로 실질적 의미를 나타낸다.

③ 공통점은 단어의 자격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⑦, ⑨만 문법적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⑨만 해당

⑦은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으로서 어간에 해당한다. ⑧은 용언에서 어간의 뒤에 붙는 부분으로서 어미에 해당한다. 또한 ⑨은 체언이나 부사, 어미 등의 뒤에 붙어서 다른 단어와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거나 특별한 의미를 첨가하여 주는 부분으로서 조사에 해당한다. 그런데 단어는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이나 이에 준하는 말, 또는 그 말의 뒤에 붙어서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말'이므로 ⑨만 단어의 자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⑤ 공통점은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인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⑦, ⑨만 음운 환경에 따라 그 형태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⑨만 해당

⑦에서 '묻-'은 '-어라'와 같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물-'로 형태가 바뀐다. ⑧에서 '-았-'은 양성 모음 어간 뒤에 붙고, '-었-'은 음성 모음 어간 뒤에 붙는다. ⑨에서 '은'은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붙고, '는'은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붙는다. 그러므로 ⑦, ⑧, ⑨ 모두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이고, 음운 환경에 따라 그 형태가 바뀐다고 볼 수 있다.

④ 03 정답 ① *단어의 구조와 형성 파악하기 [정답률 70%]
[2022 실시 10월 학평 37(고3)]

〈보기〉의 '복합어'를 '분류 과정'에 따라 분류할 때, ⑦과 ⑨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짹지는 것은? [3점]

• 〈보기〉: '복합어'를 '분류 과정'에 따라 분류하고 있습니다. '둘 이상의 어근으로만 구성되어 있나요?'라는 질문에 따라 합성어(예)와 파생어(아니요)로 분류할 수 있고, '접사가 어근의 앞에 붙어서 특정한 뜻을 더하거나 제한해 주나요?'라는 질문에 따라 접두 파생어(예)와 접미 파생어(아니요)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접사가 어근의 뒤에 붙어서 어근의 품사를 바꾸어 주나요?'라는 질문에 따라 지배적 접사(예)와 한정적 접사(아니요)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즉 〈보기〉의 '복합어'를 '분류 과정'에 따라 분류했을 때 ⑦과 ⑨에 해당하는 단어를 바르게 묶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S 21 ~ 22 *사동 표현

● 글 전체 핵심어 ● 각 문단 핵심어 ■ 글 전체 중심 문장 ★ 각 문단 중심 문장

❶ 현대 국어와 중세 국어는 문법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는데, **격 조사**의 차이도 그중 하나이다. ^❷ 현대 국어에서는 주격 조사로 ‘이/가’를, 목적격 조사로 ‘을/를’을, 관형격 조사로 ‘의’를 사용하고 있지만, 중세 국어에서는 음운 환경에 따라 주격 조사, 목적격 조사, 관형격 조사가 오늘날보다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❶ 문단 요약: 현대 국어와 중세 국어의 격 조사 차이

❷ 먼저 **주격 조사**는 ‘이’만 사용하였는데, 이때 ‘이’는 음운 환경에 따라 그 형태가 조금씩 달랐다. ^❸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면 ‘이’를 썼지만, ‘ㅣ’를 제외한 모음으로 끝나면 ‘ㅣ’를 붙여 썼고, ‘ㅣ’로 끝나면 주격 조사를 표기하지 않았다. ^❹ 예를 들어, ‘사롭’에는 ‘이’가 붙고, ‘부녀’에는 ‘ㅣ’가 붙는다. 그러나 ‘비’와 같은 경우에는 주격 조사를 붙이지 않는다.

*❷ 문단 요약: 중세 국어 주격 조사의 쓰임

❸ 다음으로 **목적격 조사**는 ‘을/을/를/를’을 사용하였다. ^❺ 앞말이 자음으로 끝날 경우 ‘을/을’, 모음으로 끝날 경우 ‘를/를’로 표기하였다. ^❻ 또 체언의 마지막 음절이 자음 또는 모음으로 끝나는지와 체언과의 모음 조화에 따라 선택됨. 앞말의 모음이 양성 모음이면 ‘을/를’로, 음성 모음이면 ‘을/를’로 표기하였다. 각각의 상황을 예로 들면, ‘묘습’에는 ‘을’이 ‘구름’에는 ‘을’이, ‘나’에는 ‘를’이, ‘너’에는 ‘를’이 붙는다.

*❸ 문단 요약: 중세 국어 목적격 조사의 쓰임

❹ 끝으로 **관형격 조사**는 단어의 의미와 음운 환경에 따라 ‘의/의’와 ‘ㅅ’을 사용하였다. ^❻ ‘이/의’는 앞에 오는 명사가 사람이나 동물일 때 사용하였는데, 앞말의 모음이 양성 모음일 때는 ‘이’를, 음성 모음일 때는 ‘의’를 사용하였다. ^❼ ‘ㅅ’은 앞에 오는 명사가 사람이면 유정 명사 또는 무정 명사 여부와 끝음절 모음의 성격에 따라 선택됨.
[A] 서 높임의 대상이거나,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닐 때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늙’은 사람이고, ‘(아래아)’가 양성 모음이기 때문에 ‘의’가 붙고, ‘벌’은 동물이고 ‘나’가 음성 모음이기 때문에 ‘의’가 붙는다. 반면에 ‘부녀’는 사람이면서 높임의 대상이기 때문에 ‘ㅅ’이 붙는다.

*❹ 문단 요약: 중세 국어 관형격 조사의 쓰임

■ 이것이 핵심!

[현대 국어와 중세 국어의 격 조사]

- 현대 국어

주격 조사	이/가
목적격 조사	을/를
통사적 사동	의

- 중세 국어: 음운 환경에 따라 현대 국어 보다 다양하게 사용됨.

[중세 국어 주격 조사의 쓰임]

- 주격 조사로 ‘이(또는 ㅣ)’만 쓰임.
- ‘ㅣ’ 모음 아래에서는 주격 조사가 생략됨.

형태	환경
이	자음으로 끝난 체언 뒤
ㅣ	‘ㅣ’ 이외의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
영형태	‘ㅣ’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

[중세 국어 목적격 조사의 쓰임]

- 목적격 조사로 ‘을, 을, 를, 를’이 쓰임.
- 체언이 자음으로 끝나느냐 모음으로 끝나느냐와 함께 체언과의 모음 조화에 따라서 결정됨.

❶ 문단

형태	환경
을	자음으로 끝난 체언 + 끝음절 모음이 양성
을	자음으로 끝난 체언 + 끝음절 모음이 음성
를	모음으로 끝난 체언 + 끝음절 모음이 양성
를	모음으로 끝난 체언 + 끝음절 모음이 음성

[중세 국어 관형격 조사의 쓰임]

- 관형격 조사로 ‘이/의’와 ‘ㅅ’이 쓰임.

❷ 문단

형태	환경
이	앞 체언이 유정 명사이고, 끝음절 모음이 양성 모음인 경우
의	앞 체언이 유정 명사이고, 끝음절 모음이 음성 모음인 경우
ㅅ	앞 체언이 무정 명사이거나 존칭의 유정 명사인 경우

S 21 정답 ④ *격 조사 이해하기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윗글: 중세 국어에서 쓰인 주격 조사, 목적격 조사, 관형격 조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음운 환경에 따라 주격 조사는 ‘이’, ‘ㅣ’, 목적격 조사는 ‘을’, ‘을’, ‘를’, 관형격 조사는 ‘이’, ‘의’, ‘ㅅ’을 사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윗글을 바탕으로 음운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주격 조사, 목적격 조사, 관형격 조사의 형태를 이해하고 특징을 파악한 것으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오해 정답?

[정답률 78%]

- ④ 중세 국어에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면 **예외 없이 주격 조사**가 사용되었다.

앞말이 모음 ‘ㅣ’인 경우에는 주격 조사를 표시하지 않음.

>오해 오답?

- ① 현대 국어의 주격 조사 중에는 **중세 국어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 있다.

현대 국어 주격 조사 ‘가’

* 근거: ❶ 문단 ❷ 문장

1문단에서 현대 국어에서는 주격 조사로 ‘이/가’가 사용된다고 하였는데, 중세 국어에서는 ‘가’를 사용하지 않았다.

- ② 중세 국어에는 **음운 환경에 따라 주격 조사를 표기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ㅣ’로 끝나면 주격 조사 표기하지 않음.

* 근거: ❷ 문단 ❸ 문장

2문단에서 주격 조사가 붙는 앞말이 모음 ‘ㅣ’로 끝나는 음운 환경에 있으면 주격 조사를 따로 표기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 ③ 현대 국어보다 **중세 국어에서 사용된 목적격 조사의 형태가 더 다양하였다.**

‘을/을/를’

* 근거: ❶ 문단 ❷ 문장, ❸ 문단 ❶ 문장

현대 국어의 목적격 조사는 ‘을/를’뿐이지만, 중세 국어의 목적격 조사는 ‘을/을/를/를’이었다고 하였다.

- ⑤ 중세 국어에서 **앞말의 모음이 양성 모음이고 자음으로 끝나면 목적격 조사 ‘을’을 사용하였다.**

앞말이 자음으로 끝날 경우 ‘을/을’, 앞말이 양성 모음이면 ‘을/를’



매체

T 01~03 (가)는 학생들이 발표 준비를 위해 휴대 전화 메신저로 나눈 대화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정민'이 제작해서 블로그에 올린 발표 자료 초안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2022 수능 예시 43~45]

(가) 휴대 전화 메신저 대화방

PM 10:15

조 모임 대회방(4명)
단체 대회방

① 발표에 대해 상의하려고 대회방 열었어. 정민
대회방 형성의 목적

보미 ② 서로 시간 맞추기 어려우니까 메신저로 얘기하는 게 낫겠다.
메신저의 장점

윤영 ③ 더 상의할 게 남았어? ④ 학교에 생긴 학습 공간 <글벗>에 대해 발표하기로 하고, 자료 조사 역할도 나눴잖아.

⑤ 한글 자음자로 된 기호 활용 대회의 중심 환경

상호 ⑥ 완전 동의. ㅋㅋ 발표 자료는 정민이가 만들기로 했어도 발표 자료를 어떻게 만들지는 같이 얘기해 보는 게 좋겠어.

보미 ⑦ 일단 각자 조사한 거 얘기해 보자.
자료 ① – 도면, 인터뷰 동영상

윤영 ⑧ 난 <글벗>의 공간 구성을 조사하기 위해 도면을 구했어. 도면에 나타난 공간의 활용 방법에 대해선 선생님과 인터뷰를 했어. 인터뷰 동영상도 촬영! 상호야! <글벗>의 제도적 배경은 정보가 별로 없던데, 조사됐어?

상호 ⑨ <글벗>은 학교 공간 혁신 차원에서 도입된 거잖아. 그래서 ⑩ 학교 공간 혁신의 개념, 추진 방향, 연도별 시행 상황을 조사했는데 줄글로 된 자료밖에 못 구했어. ㅜㅜ 연도별 시행 상황은 시행 학교 수의 변화 추이를 설명하는 거라 그래프가 있으면 좋을 텐데……

⑩ 줄글 자료가 있는 사이트의 주소
상호 여기 주소! <http://www.△△△.kr>

보미 ⑪ 나는 <글벗> 이용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알아보려고, 만족도,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 설문 조사를 해서 그래프로 정리해 봤어. 그리고 학생들이 <글벗>을 이용하는 사진도 찍었어. 여기 찍은 사진 공유~

사진 파일 전송: 글벗 이용 모습.jpg(4MB) → 사진 첨부

윤영 ⑫ 오! <글벗> 이용 모습이 잘 드러나네. ^^

⑬ 사진 잘 찍었다. 조사한 내용들은 모두 나한테 보내 줘. 정민
이제 발표 자료 어떻게 만들지 얘기해 보자.

윤영 ⑭ 발표 자료에 담을 내용은 <글벗>의 공간 구성과 활용 방법, 학교 공간 혁신에 대한 정보, 학생들의 이용 모습과 반응이네.

보미 ⑮ 발표 자료는 발표용 프로그램을 이용해 슬라이드 형식으로 만들자.

상호 ⑯ 도면, 동영상, 사진, 그래프를 잘 활용하면 좋겠다. ㅎㅎ
한글 자음자로 된 기호 활용

⑰ 그럼 지금까지 얘기한 거 종합해서 초안 만들게. 초안은 토요일까 정민
지 조 모임 블로그에 올릴 테니까 확인하고 댓글 달아 줘.
03번 <보기>

(나) 블로그에 올린 발표 자료 초안

http://blog.○○○.com/글벗

조 모임 블로그 → 블로그를 통해 발표 초안 공유

제목: 발표 자료 초안 글쓴이: 정민

댓글로 의견 달면 참고해서 수정할게.

애들이 <글벗>이 왜 만들어졌는지 먼저 아는 게 좋을 거 같아서 첫 번째 슬라이드는 이렇게 구성했어. □: 글의 소재를 제목에서 일관되게 언급함

① 1. <글벗>이 만들어진 배경 → (가)의 자료 ②에 해당

학교 공간 혁신의 개념

- 미래를 위한 학교 공간을 조성하고 창의적 교육 문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
- 획일화된 학교에서 벗어나 기존의 공간을 학생의 관점에서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으로 재구조화하는 사업

학교 공간 혁신의 추진 방향

- 체험형 놀이, 창의적 학습 공간 등 공감형 공간 조성
-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생과 교사가 적극적으로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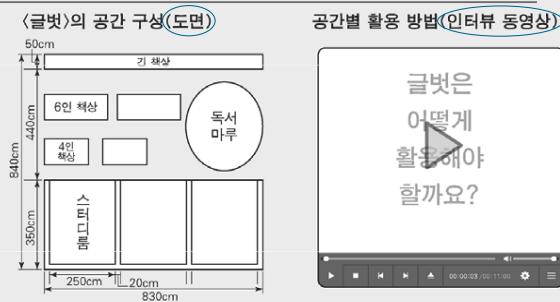
↑ 줄글 자료로 막대그래프로 만들 연도별 시행 상황(단위: 교)

연도	2010년(예상)	2012년(예상)	2013년(예상)
교수 곳	170	270	360

자료 출처: 학교 공간 혁신 누리집(www.△△△.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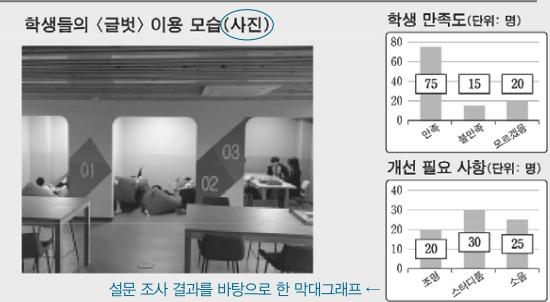
애들이 <글벗>을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공간을 중심으로 두 번째 슬라이드를 구성했어.

② 2. <글벗>의 공간 구성과 활용 방법 → (가)의 자료 ①에 해당



세 번째 슬라이드는 <글벗> 이용 모습을 포함해서 구성했어.

③ 3. <글벗> 이용 현황과 학생들의 만족도 → (가)의 자료 ③에 해당



T 01 정답 ④ *매체에 따른 대화의 특성 파악하기

(가)의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의 대화: (가)는 휴대 전화 메신저를 통해 이루어진 대화입니다. 조원들은 사진이나 링크를 공유하는 등 휴대 전화 메신저 대화방의 특성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의 (가)에서 대화 참여자들이 휴대 전화 메신저 대화방에서 나눈 의사소통의 특성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오늘 정답 ?

④ '보미'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매체의 특성을 활용하여 자신이 보미는 자신이 찍은 글벗 이용 모습을 대화방에 전송함. 찍은 사진을 다른 대화 참여자들과 공유하고 있다.

*근거: (가) - ⑪

(가)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매체는 다양한 형태의 첨부 파일을 공유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보미'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온라인 대화 단체방의 특성을 이용하여 친구들에게 자신이 찍은 글벗 이용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는 '보미'의 말 중 '여기 찍은 사진 공유~'와 '사진 파일 전송: 글벗 이용 모습.JPG(4MB)'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늘 오답 ?

① '상호'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량의 정보를 전하는 방식으로 의사소통하고 있다.
상호는 대화방에 있는 친구들에게만 정보를 전하고 있음.

*근거: (가) - ⑤, ⑧, ⑩, ⑯

'상호'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아닌 대화방에 있는 3명에게 정보를 전하는 방식으로 의사소통하고 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량의 정보를 전하는 것에는 인터넷 블로그 등에 글을 게시하는 방식 등이 속한다.

[불특정: 특별히 정하지 아니함.]

② '정민'은 휴대 전화 메신저로 이루어지는 대화의 장점을 거론 정민은 대화의 목적을 거론함. 하며 해당 매체로 대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근거: (가) - ①

'정민'이 대화방을 열었고, 발표에 대해 상의할 것이 있어 대화방을 연 것이라며 대화의 목적을 거론하였지만, 대화의 장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휴대 전화 메신저로 이루어지는 대화의 장점에 대한 발언은 '보미'의 '서로 시간 맞추기 어려우니까 메신저로 얘기하는 게 낫겠다.'이다. 그러나 이 발언도 휴대 전화 메신저의 장점을 직접 거론한 것은 아니다.

[거론하다: 어떤 사항을 논제로 삼아 제기하거나 논의하다.]

③ '윤영'은 하이퍼링크를 이용하여 대화 내용과 관련된 추가적 하이퍼링크를 제공한 것은 상호임. 인 정보를 다른 대화 참여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근거: (가) - ⑩

하이퍼링크는 링크를 통해 다른 정보에 접속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이 글에서 하이퍼링크는 '상호'가 언급한 자료의 출처인 인터넷 주소 'http://www.△△.kr'에 해당한다. '윤영'은 하이퍼링크를 친구들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하이퍼링크: 링크를 통해 다른 정보에 접속할 수 있는 것. 주로 본문 글씨와 다른 색깔로 표시돼 있고, 이 글씨를 클릭하면 바로 관련 사이트로 연결됨.]

⑤ '정민'과 '상호'는 한글 자음자로 된 기호를 활용하여 자신의 '상호'만 해당됨. '원전 등의 ㅋㅋ', '좋겠다. ㅎㅎ'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근거: (가) - ⑤, ⑯

'상호'는 'ㅋㅋ'과 'ㅎㅎ'처럼 한글 자음자로 된 기호를 활용하고 있지만, '정민'은 한글 자음자로 된 기호를 사용하지 않았다.

[자음자: 자음을 나타내는 자모나 글자]

T 02 정답 ② * 매체 자료의 수정 계획 파악하기

⑦~⑩을 바탕으로 '정민'이 세운 발표 자료 제작 계획 중 (나)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 ⑦~⑩: ⑦~⑩에는 각 학생들이 조사한 발표 자료 내용이 드러나 있습니다.
- (나): '정민'이 (가)에서 각 조원이 어떤 자료를 조사했는지 알아본 후 그를 토대로 만든 발표 자료 초안입니다.

즉 (가)의 ⑦~⑩에 드러난 내용을 바탕으로 '정민'이 세운 발표 자료 제작 계획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오늘 정답 ?

② ①에서 언급된 두 자료는 서로 관련이 있으므로 앞뒤 슬라이드에 연속적으로 배치해야겠군.

*근거: (가) - ⑦, (나) - ②

①에서 언급된 글벗의 도면과 공간 활용에 대한 인터뷰는 앞뒤 슬라이드가 아니라 두 번째 슬라이드 하나에 모두 제시되어 있다. 앞뒤 슬라이드에 연속적으로 배치해야겠다고 한 계획은 (나)에 반영되지 않았다.

[언급되다: 어떤 문제에 대하여 말하여 지다.]

[배치하다: 사람이나 물자 따위를 일정한 자리에 알맞게 나누어 두다.]

>오늘 오답 ?

① ①에서 언급된 학습 공간의 명칭을 제목에 일관되게 포함하여 각 슬라이드 상단에 배치해야겠군.

*근거: (가) - ③, (나) - ①~③ 슬라이드의 제목

①에 언급된 학습 공간의 명칭인 '글벗'은 각 슬라이드의 제목에 모두 등장한다. 따라서 제목에 일관되게 포함하여 각 슬라이드 상단에 배치한다는 계획은 반영되었다.

[일관되다: 하나의 방법이나 태도로써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되다.]

③ ⑤에서 언급된 자료 중 연도별 시행 상황에 대한 내용은 그 슬라이드 []에서 막대그래프로 제시함. 래프로 바꿔서 제시해야겠군.

*근거: (가) - ③, (나) - ①

⑤에서 언급된 자료는 학교 공간 혁신의 개념, 추진 방향, 연도별 시행 상황이다. 이들은 모두 첫 번째 슬라이드에 제시되어 있는데, 학교 공간 혁신의 개념과 추진 방향은 줄글로 제시된 반면 연도별 시행 상황은 막대그래프로 제시되었다.

④ ⑥에서 언급된 내용 중 학교 공간 혁신에 대한 정보를 첫 번 슬라이드 []에 학교 공간 혁신의 개념과 추진 방향을 제시함. 째 슬라이드에 배치하여 <글벗>이 만들어진 배경을 가장 먼저 제시해야겠군.

*근거: (가) - ⑭, (나) - ①

첫 번째 슬라이드(①)의 내용은 학교 공간 혁신의 개념과 추진 방향이다. 이를 소개하는 첫 번째 슬라이드의 제목은 '글벗이 만들어진 배경'으로, 학교 공간 혁신에 대한 정보를 첫 번째 슬라이드에 배치하여 글벗이 만들어진 배경을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다.

⑤ ⑦에서 언급된 자료를 문자 언어와 함께 배치하여 발표 내용을 복합 양식적으로 제시해야겠군.

*근거: (가) - ⑯, (나) - ①~③

(나)는 ⑥에서 언급된 도면, 동영상, 사진, 그래프 등을 활용하면서도 각 슬라이드의 제목이나 내용을 문자 언어로 표현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언어를 활용하여 복합 양식성을 확보하고 있다.

[복합: 두 가지 이상이 하나로 합침, 또는 두 가지 이상을 하나로 합침.]

T 03 정답 ① * 매체 내용 수정의 적절성 파악하기

<보기>는 (나)에 달린 '댓글'이다. <보기>를 바탕으로 (나)의 세 번째 슬라이드를 수정한 ⑦~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나)의 세 번째 슬라이드에 대해 친구들이 댓글로 단 의견입니다.

• (나): 발표에 쓰일 슬라이드 화면의 초안입니다.

• ⑦~⑩: <보기>의 댓글에서 지적된 사항을 (나)의 세 번째 슬라이드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즉 <보기>의 댓글을 반영하여 (나)의 세 번째 슬라이드에서 수정한 부분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